



성도의 빛 8-9 1985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빛을 읽읍시다”

표지 설명: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니파이 백성에게 나타나심(니삼 23:7) 로버트 베렛 그림

International Magazine © 1985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판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고 문:

엘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통 권: 제238호, 제21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1985년 8월 1일(격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김 영 철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609KO PRINTED IN
KOREA 8-9/85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
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 1 예수님의 부활.....매리온 지 롬니 부대판장
- 6 서로 비슷한 예언자들:
바울과 요셉 스미스.....리처드 로이드 앤더슨
- 13 한 번의 희생, 두 배의 축복.....매리 앤 영
- 16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
변화 속의 굳건함.....래리 이 모리스
- 21 “나팔 소리같이”.....젠 뉴먼
- 24 멀리 있는 아주 먼 옛날의 친구.....패기 힐 리스캠프
- 26 숨은 보화.....로리 앤 브라운
- 28 간증을 얻기 위하여.....데니스 엘 릿고우
- 30 마이어즈 장로님 여기 있습니다.....레오나드 에프 마이어즈
- 33 야오시.....리처드 타이슨
- 39 첫째 목표-아빠를 개종시킴.....엘리자벳 세인트즈베리 오던
- 41 확신을 주는 위안.....조엘렌 제스터
- 42 심심풀이(종이인형)
- 43 성신의 은사.....앨리스 스트래튼
- 46 친구가 친구에게
- 49 룯의 탈출(경전 이야기)
- 50 교회 및 지역 소식

예수님의 부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이 메시지는 롬니 부대관장님이 198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하신 말씀을 편집한 것이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막 16:6) 이 간결한 말씀은 기록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곧 주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기이하여, 이 지상에서 예수와 가까이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잘 배웠던 사도들까지도 이 사건의 완전한 진실성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린 첫번째 설명은, 그 당시에 살고 있거나 그 전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눅 24:11) 보였습니다. 산과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지마는 첫번째 부활의 아침이 있기까지 한번도 무덤에서 살아났던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구유에서 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필멸의 몸에 생기를 주었던 전세의 영이 다시 육신의 몸에 들어가서, 영의 몸과 육신의 몸이 다시 합쳐져서 불사불멸의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비단 자신의 사망을 이기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져 오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부활을 가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며 간증합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가 되도록 택함받았던 천국 회의에서 성별되고 성임된 목적이요 목표였습니다.

그의 지상에서의 성역에 관하여 구속주로서 그의 역할에는 다음의 4가지 일이 요구되었습니다.

첫째, 그의 전세의 영이 필멸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하늘로부터 선포된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오늘날 다윗의 동네에……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11)

둘째, 그는 모든 인류의 고통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는 이 일을 겻세마네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는 그가 겪는 고통의 극심함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यो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하니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성 19:18-19)

셋째,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배척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는 불신자들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부활로써 다시 생명을 취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점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악한 자들에 의하여 처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 10:17-18)

이 권세는 그가 동정녀 마리아(필멸의 존재)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불사불멸, 승영에 이른 자)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받은 권세입니다.

그처럼 필멸의 몸을 입고, 그처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겻세마네 동산에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사망의 사슬을 끊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속주로서의 그의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요구된

네번째이며 마지막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지상의 생활 전체는 모두 이같은 결과를 향하여 진행되는 것이라고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다시 얻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암시된 것이었습니다. 슬픔에 차 있는 마르다에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부활은 인간의 경험으로는 너무도 생소한 것이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도 이 교리를 들었습니다. 이 교리로 걱정이 된 그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리하여, 빌라도의 허락을 얻어 그들은 파수꾼을 두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막 27:63-64)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 파수꾼들은 부지불식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의 최후 준비인 천사에 의한 무덤문이 열리는 것을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 28:2-4 참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이 지난 첫째 일요일에 다섯 번이나 주님은 그의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첫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음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울면서 동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돌아설 때, 그녀는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의 음성을 알아차린 “마리아가 돌이켜” 그를 만지려 하듯이 “랍오니어(선생님)”라고 말하였습니다.

부드럽게 그녀를 멀리 하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4-17)

잠시 해가 떠오를 무렵,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최후로 장사하기 위하여 그 몸에 바를 향유를 갖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막 16:1 참조) 그들은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의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람게도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났으며,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눅 24:5-6)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 갈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노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마 28:9)

같은 날,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이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대화에 관하여 묻자, 그들은 여인들이 이야기해 준 것을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의심스러운 태도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에 관한 경전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엠마오에 머물면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눅 24:13-31 참조)

그날 저녁,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몬과 글로바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계셨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그들에게 그가 영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그는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더라.”(눅 24:36-43 참조)

이 역사적인 날에 그의 모든 제자들은 이같이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는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무덤에 안치하였던 그 시신을 예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가 살아났고, 불사불멸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사십일 동안 그는 제자들 가운데서 성지에서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 20:26-29 참조) 또한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그물 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함께

먹기를 청하시면서, 친히 솥불로 요리하신 음식을 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요 21:1-14 참조) 갈릴리 언덕에서 그는 열 한 제자에게 온 나라에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 28:16-18) 마침내, 베다니에서 그가 그들을 축복하신 후에, 그들은 그가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눅 24:50-53)

팔레스타인에서의 그의 사명을 마치시고, 그는 미대륙에 있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시어 그들도 그의 부활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하강하시는 주를 뵈었을 때, “인자가……흰 옷을 입으셨더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 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의 칭에 그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만져 보고 나서” 확실히 알고, 그가 부활하신 구속주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니삼 11:7-15 참조)

주께서 부활하신 후 성지에 있는 제자들과 미대륙의 니파이인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을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경륜의 시대는 예언자 요셉이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은 놀라운 시현으로 열려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예언자 요셉에게 말씀하시어, 그는 두 분의 음성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개인적으로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았으며, 후에 그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교성 130:22)

약 12년 후, 구세주께서 친히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때 시드니 리그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저는 살아 계시다……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의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성 76 : 22-23)

키틀랜드 신전에서는 예언자가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있을 때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걷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 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에는 호백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교성 110 : 1-4)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 사셨던 유일하신 죄없는 분으로서, 바꿀 수 있는 죄없는 일생을 지니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과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지니고 계셨으므로,

그분만이 무한한 대속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 10 : 18) 그러므로, 그가 깨어진 율법의 빛을 대신 청산하고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은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으로써 그가 공의의 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을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속한 자비의 율법을 유효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사망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나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사망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의 영향력과 악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도덕적인

자유의지의 거룩한 은사를 받았으므로 예수 이외의 책임 연령에 이른 다른 어떠한 사람도 모든 일에 있어서 악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그가 죄를 지은 만큼 깨끗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결함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는 한, 주님의 면전에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범법의 결과로 이 영적인 사망을 겪게 되므로, 공의의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범법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범법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들을 그들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어떤 중보의 혜택을 입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예수님의 위대한

예수님은 단지 자신을 위하여 죽음을 극복하시고, 자신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육체를 얻으셨을 뿐 아니라...만물의 부활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지에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또 미대륙에서 니파이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든지 부활할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모든 영혼에게
죽음으로부터의 구속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로써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그리하였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의 범법의 결과로 얼룩져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자비의 율법을 유효하게 하시어, 모든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조건없이 무덤으로부터 구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법의 영향으로부터의 용서와 구속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서받고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구속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대로 생활하는 자들 뿐이며, 그들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구속주의 대속의 피로 씻김을 받도록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복음—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곧 자비의 율법, 예수를 문자 그대로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첫째 요건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앙 개조 제 4조 참조) 그런 다음, 자신의 죄를 버리고 자신의 능력껏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필수 조건과 다른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비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예수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겪어야 할 것입니다. (교성 19:16-18 참조) 왜냐하면, “회개에 이르도록 신앙을 쌓지 않은 자들은 공의의 요구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지니, 신앙을 갖고 회개한 자에게만 크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내려지리라.”(앨 34:16)

그리스도의 대속 곧 나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고, 신앙과 회개와 끝까지 충실함을 통하여 나의 죄의 사유함을 받는 기회를 준 그리스도의 대속은 내 영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를 느끼게 해줍니다. 나는 다음의 찬송가의 가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찬송가, 114장)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의 육신의 성역에서 4가지 사항이 요구되었다. 그는 필멸의 존재로 태어나셔야 했고, 갯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

그는 자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사망의 속박을 깨뜨리시게 되어 있었다.

2. 다시 사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 많이 있었다. 부활이 있을 후 며칠 동안 주님이 성지에서 자기 추종자들에게, 또한 미대륙에서

니파이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 주셨다. 그는 또, 우리 시대에도 다시 자신을 보이셨다.

3. 그리스도는 그의 대속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육체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였다. 그는 또,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하여 초래하는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실 수 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 용서와 구속은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여 회개에 이르기까지 구세주께서 정하신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만 올 수 있다.

4.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생명과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대속의 희생을 하실 수 있었다.

토론 지침

1. 대속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구세주의 대속이 자신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반원들이 그들의 느낌을 함께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소리내서 읽고 토론할 만한 성구와 인용문이 있나?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이 토론이 더 잘 될까? 구세주의 사명에 관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나?

서로 비슷한 예언자들 : 바울과 요셉 스미스

리처드 로이드 앤더슨

바울이 예언자였다면 요셉 스미스도 역시 예언자였다. 바울이 예언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는 요셉 스미스의 부름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두 위대한 분의 생애를 주의깊게 연구한 결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이런 접근 방식에서 요셉 스미스가 바울과 정말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외모가 멋있지 않았으나 요셉 스미스는 그

키와 체격으로 대부분의 방문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바울은 선교사 사도였던 반면 요셉 스미스는 직접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대신, 대개 선교 사업을 지시했다. 바울은 당시의 문화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반면 요셉 스미스는 중학교 이상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극도로 빈곤한 속에서 자랐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격한 개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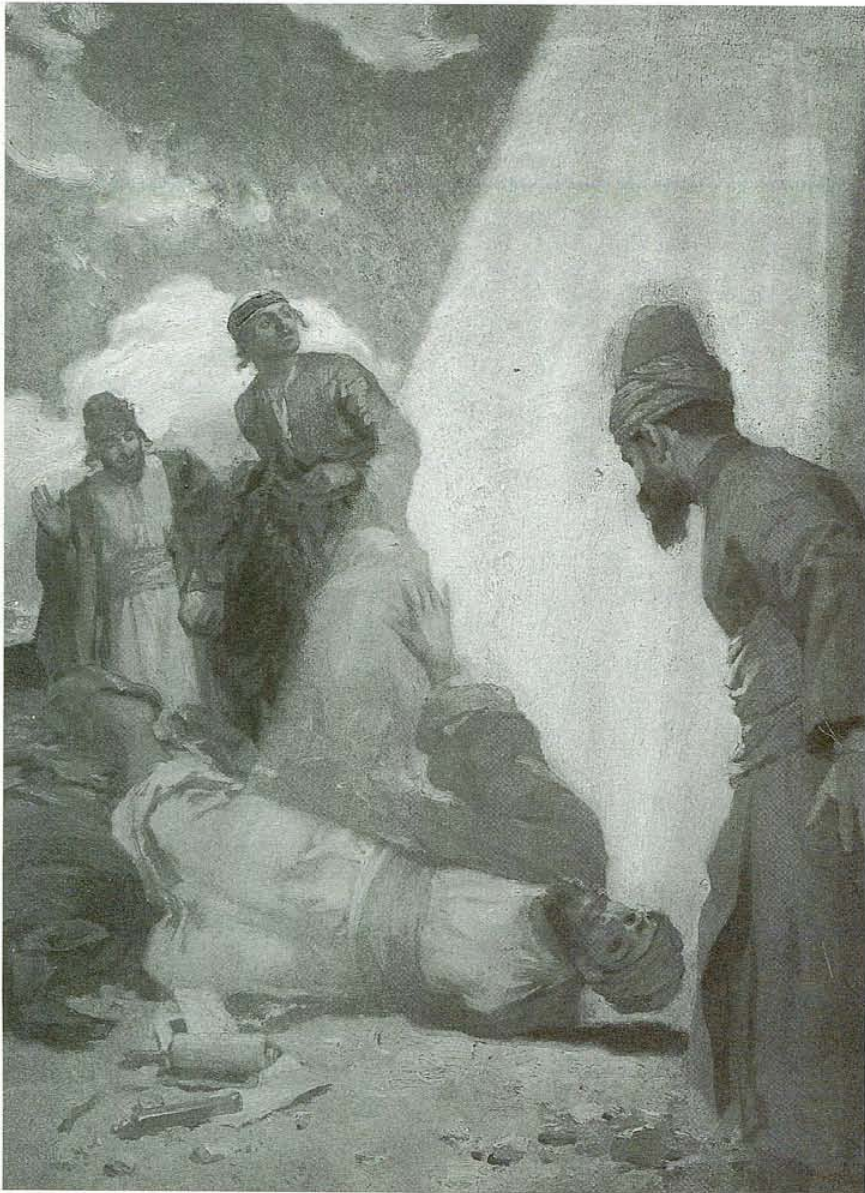
유사성도 있다. 한 사람은 영어를 했고, 또 한 사람은 히브리 방언과 희랍어를 말했다는 사실도 두 사람 다 성신에 의하여 영감받은 대로 말했다는 점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부름, 권능 및 계시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으므로 외모를 떠나서 내적인 영적 실체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번째 시현

바울과 요셉 스미스는 두 사람 다 “첫번째 시현”을 보았다. 물론 상황은 서로 달랐으나 다메섹 근처에서의 시현과 뉴욕주 숲에서의 시현은 이 두 예언자에 대하여 일생 동안의 봉사를 위한 방향 제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께서 직접 그 경륜의 시대를 여신 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으나, 아버지와 아들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것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시작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시현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대화 있었으며, 모두 다 예언자들이 자신의 생활 방향을 바꾸고 주님의 지시를 더 받도록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다.

바울의 시현은 아무 부담없이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 스미스의 시현을 배척한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반대하는 주장은 대부분이 똑같은 힘으로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실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은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어, 요셉 스미스의 시현에 관한 맨 처음 설명으로 알려진 것은 그 일이 있는 지 십 수년이 지난 때까지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 스미스의 신뢰성이 공격받았다. 그러나,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시현에 관하여 알려진 가장 최초의 설명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가 경험한 후 약 25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되었다.

비판자들은 요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에 관한 똑같은 여러 기사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같이 생각되는 점에 관하여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여러 번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그것을 짧게도 하고 길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다. 요셉 스미스는 교회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적절하게 공표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자신의 신성한 경험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따라서, 첫번째 시현에 관한 그의 가장 상세한 기사는 그가 자신의 정식 역사를 시작할 때, 몇 가지 다른 기사를 적은 후에야 행하였다.

이것도 바울의 경험과 일치한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시현에 관한 가장 상세한 설명은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 (행 26 : 9-20 참조) 그리고 이것은, 그가 영광스럽게 되신 구세주께서 이방인 사이에서의 바울의 일을 예언하시는 것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말한,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예이다. (16-18절 참조) 왜 바울은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을 이 경우에만 포함시키려 했을까? 아마도 그가 유대인 기독교인 무리보다는 이방인 청중에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과 요셉 스미스는 두 사람 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될 때까지 상세한 내용 전체를 밝히는 것을 미룰 까닭이 있었다.

예언자들

바울과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그들의 기록한 접촉이 직접적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 예언자 모두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면전에 있었으며, 두 분 모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바울은 첫번째 시현을 본 이후로 그 다음 25년 동안에 4번 더 주님을 뵈었다고 했다. (행 22 : 17-21 ; 고후 12 : 1-4, 설명 ; 행 18 : 9-10 ; 행 23 : 11 참조) 요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을 본 이후 15년 동안에 여러 번 주님을 뵈었다고 했다. (예로서, 교성 76 : 22-24 ; 137 : 2-3 ; 110 : 1-10 참조) 이 두 예언자 중 누구도 그런 신성한 경험을 지나치게 떠벌이는 사기꾼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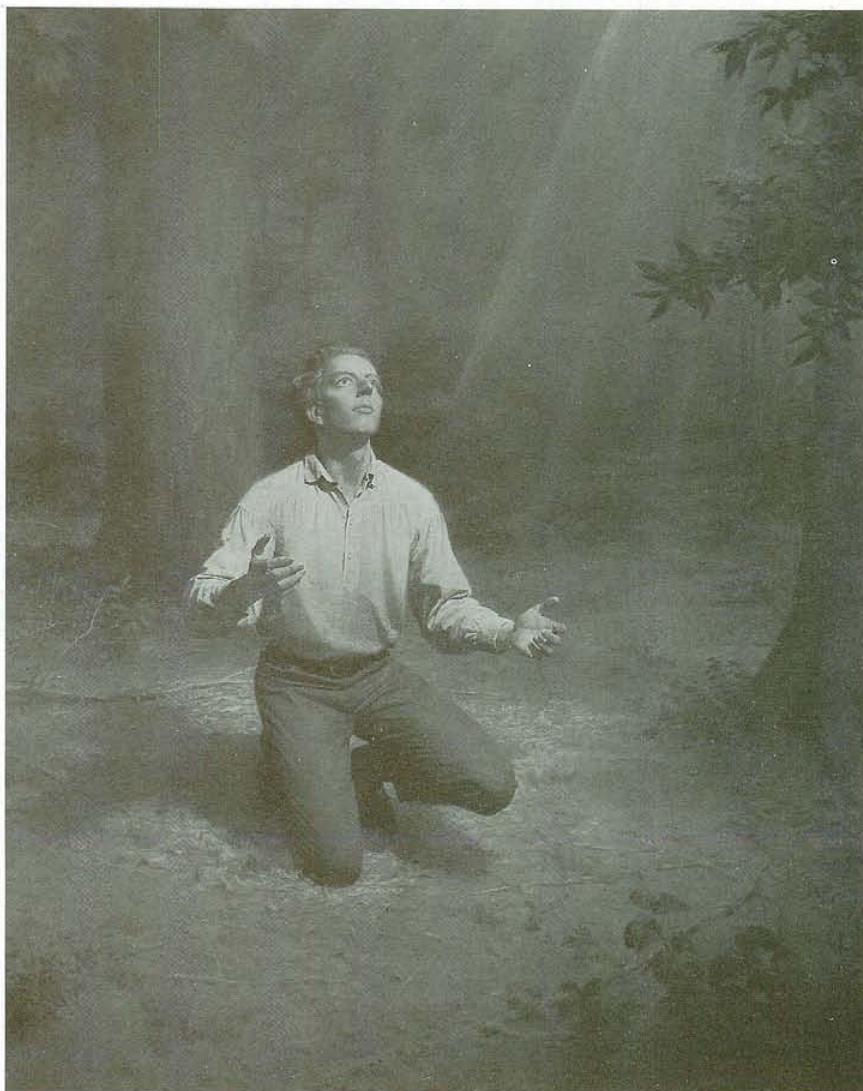
두 예언자 모두 자신의 하나님을 대표할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말씀은 구세주를 대변하여 말할 자신의 권능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울은 도전적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고전 9 : 1) 그리고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나는 정말로 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들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증오와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나는 한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며, 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읍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정죄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요셉 스미스, 교회 정사,

1 : 25)

비록, 두 예언자가 모두 다 위대한 교리적인 통찰을 얻었지만 사기꾼에게 혼히 있는 또 다른 덫을 피했다. 그들은 모든 해답을 다 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바울은 인간의 지식을 어린 아이의 이해력과 비교함으로써 고린도인들의 오만을 무너뜨렸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고전 13 : 9) 또, 심판과 재림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몇 가지 말씀도 그가 1839년에 말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릅니다.”①

바울과 요셉 스미스는 두 사람 다 당시 사람들에게 참담한 말을 하는 사람들로 취급받았다. 그들의 죄란? 그들은 이전의 경전에 추가했었다. 이 “침해”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의



적대자로 취급받았고, 요셉 스미스의 추종자들은 오늘날 비기독교인으로 딱지붙여진다. 그러나, 바울과 요셉 스미스는 모든 유대인 및 기독교인 예언자들이 했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전의 계시에 개인적인 간증을 덧붙이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 고등 평의회 앞에서 자신의 다른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 즉, 부활이 실재함을 믿는 것에 대하여 재판받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것이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 (행 23 : 6 참조) 그의 경우에 바리새인과 다른 점은 개인적인 증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고린도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그에게 도전했을 때, 그는 철학적인 가능성에 관하여 그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보았으므로 스스로 안다고 주장한 이후에야 그들의 반대에 답변했다. 그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고전 15 : 15)라고 했다. 이와 비슷하게, 1840년 1월에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모임을 하는 동안,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미주리주에서의 박해가 있는 후 말일성도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간증하는 동안, 리그돈 형제는 웅변적으로 회복에 관한 성서상의 증거를 길게 이야기했으나 요셉은 문자 그대로 단상으로 펄쩍 뛰어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본 시현에 관하여, 또 자신이 받은 천사의 성역에 관하여 간증했다.”^②

예언자의 필수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 바울과 요셉 스미스의 경우에는 두 사람 다 그리스도와 눈으로 보고 직접 접촉한 사실에 의거하여 그렇게 했다.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관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 초기의 선지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 사이에는 성직자와 평민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없었다. 권능과 교리적 계시라는 관점에서 신약전서의 사도들은

명백하게 특별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함께 나누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침례받고, 안수에 의하여 성신을 받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바울은 지나친 것을 바로 잡으면서 초기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예언”을 구하라고 했다. (고전 14 : 1) 그는 성신을 통하여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게 매우 감동적인 견해를 적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단지

“성령으로……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으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다. (고전 2 : 10)

바울의 가르침과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사이의 유사성은 분명하다. 요셉 스미스는 아직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삼촌 실러스 스미스에게 쓴 편지에서 옛날에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계시는 종교의 역사이지 종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 성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해답은 사실상 그런 대답을 새롭게 찾으라고 하는 권고였다. 요셉은 삼촌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리고 저는 고대의 성도들과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초기 성도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에게 나아간다면 주님이 그들에게 했던 것만큼 빨리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위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③ 하나님의 참된 증으로서 지속적인 계시를 받는 날은 지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셉은 이 외에도 여러 번 자신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또한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간증은 예언의 영이므로”^④ 예수님의 간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언을 향유하게 되리라는 말을 덧붙였다. 즉, 누구든 성신의 동반하심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면 모두 예언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미세하지만 강력한 영의 속삭임을 알아내는 방법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언을 했다. “사람은 계시의 영의 첫 암시에 주목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훈계했다. “자신에게 순수한 예지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마음에 떠오르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⑤

이 두 가지 비슷한 가르침은, 참된 선지자는 어떤 예외적인 부류에서 전문적인 위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권세에 모든 사람이 도달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운명. 바울과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는 우리의 개인적인 운명에 관하여 이야기해 준다.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 스미스의 시현의 3단계 영광의 빛나는 장면보다 더 가슴설레는 것은 없다.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영광의 단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한 천국과 무서운 지옥만 믿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겸손한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세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본 이야기를 했다. (고후 12 : 2-4 참조) 그리고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와 비교했으며, 이것은 영광에 있어서 해, 달, 별이 서로 다른 것처럼 다르다. (고전 15 : 40-42 참조)

바울과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은 서로 일치하며, 개인적으로 참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계와는 달랐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하늘의 시현을 받을 때는 전에는 결코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⑥

사랑. 나는 바울과 요셉 스미스보다 사랑의 의미를 더 잘 가르쳐 준 예언자들을 알지 못한다. 참으로 그들 자신의 이기심없는 사랑의 순수함이 이 주제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의 효력을 확인해 주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발견되는 해의 영광에 속하는 사랑에 대한 바울의 묘사나 또는 충실했거나 모반적이었거나 개종한 사람에 대한 그의 아버지같은 사랑은 별로 말할 필요가 없다.

요셉 스미스의 생애도 다른 사람에 대한 똑같이 성숙된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리버티 감옥에 갇히기 전에 탈출할 수도 있었으나 성도들에게 보복이 가해질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 ⑦ 폭도들이 떠나고 성도들의 이주가 시작됨으로써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나자 그는 세 번이나 탈옥을 시도했으며, 그것은 모두 창의적이었으나 마지막 것만이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에 자기 생명이 자기 백성에게 가치가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가치없다는 것을 느끼고는 미시시피의 먼 강둑으로부터 돌아왔다. 이 결정을 둘러싼 역사 기록 서류에서는 그가 노한 군대가 자기를 찾기 위하여 나부로 와서 자기 백성을 위협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자신을 위협에 내맡겼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⑧ 요셉은 언제나 자기 안전을 둘째로 두고 자기 가족과 말일성도의 복지를 먼저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가 나부에서 사랑에 관하여 가르친 것에는 상당한 내용이 있다. 상호부조회 앞에서 그가 말했던 것은 표현에 있어서는 혹시 가정적일지 모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신성한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수록 멸망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그들을 우리 어깨에 매고, 그들의 죄를 우리 등 뒤로 던지게 됩니다.” ⑨ 그 이전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가정을 떠나는 십이사도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가족의 축복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며, 온 세상에 펼쳐져서 모든 인간 가족을 간절히 축복하고 싶어한다.” ⑩

요셉 스미스는 순교하기 불과 몇 주 전에 자아에 대하여 통찰한 것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한 가지 말씀을 했다. “아무도 나의 역사를 모른다.” 고 말한 그의 말씀은 그의 시현을 무한히 자기를 바치는 것과 연관시키는 사랑의 작별 선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나의 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내 마음을 몰랐습니다. 누구도 나의 역사를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것을 떠맡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내 스스로 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니다. 나의 음성은 항상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⑪ 여기에서 요셉은 자기가 놀라운 일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누었다. 나는 요셉 스미스와 바울이 진실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도 속였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은혜와 행함.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책자에서 그리스도와 산상수훈을 인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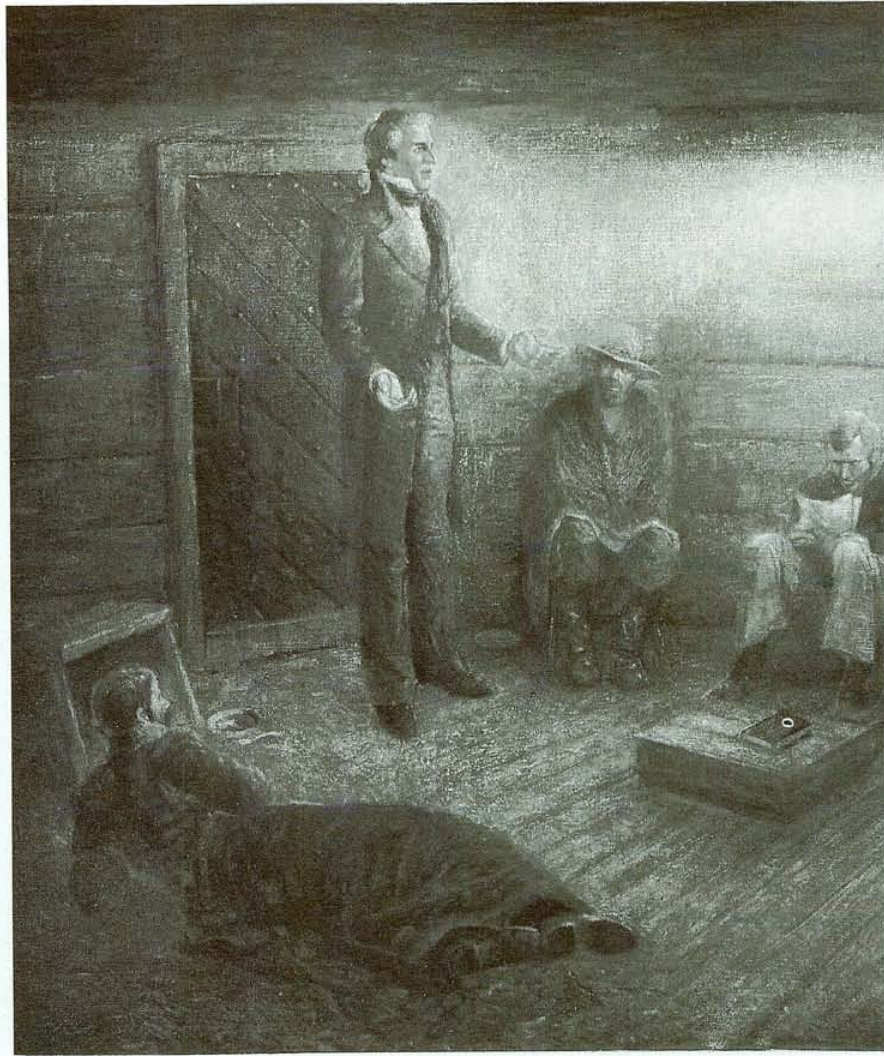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행함이 없이 자기 말을 듣는 것(또는 읽는 것)은 견고한 기초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집과 비슷한 도덕적 재난을 만들어 내리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끝맺으셨다. (마 7 : 24-27 참조)

바울은 여러 통의 편지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도덕적 죄를 열거하면서 한번은 이런 말로 결론을 맺으셨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 : 21) 기독교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행동의 종교로부터 믿음만의 종교로 바꾸는 것보다 더 좋은 배도의 증거가 어떤 것일 수 있나?

요셉 스미스도 구세주의 은혜, 자비 및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또 우리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이 옳은 일이며 참된 것인줄 아노라.” “또한 우리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은 ... 옳은 일이며 참된 것인줄 아노라.”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구세주와 바울의 가르침에 일치하여 또 책임의 원리도 가르쳤다.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옳은 일이며 참된 것”이라고 가르쳤다. (교성 20 : 30-31)

쉽게 구원받는다든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요셉 스미스 또한 선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성공적으로 다스리는 것에 기반을 둔 구원을 계속해서 가르쳤다. 바울처럼 그도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심판날에 무심히 지나치게 되지 않으리라고 가르쳤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생활에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심판날에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호소했다. ⑩

행위의 중요성에 관한 교리가 구세주의 구속의 역할을 어떤 면에서라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통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보다 더 감동적인 기사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 고난은 하나님ियो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 (교성 19 : 18-19)

바울이 가르친 똑같은 복음이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회복되었으며, 여기에는 회개를 조건으로 한 용서의 확신과 계명에 순종하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를 수 있다는 약속도 같이 회복되었다.

개인적 영성과 희생

바울과 요셉 스미스에게서 나타난 개인적인 영적 자질은 놀라우리만치 흡사하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다. 바울의 성숙한 편지는 성도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라는 그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진에 의하여 감옥으로부터 풀려 나는 큰 기적은 바울과 그의 동반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행 16 : 25-26)

이와 비슷하게 요셉 스미스의 편지, 일기, 나부에서의 연설도 그의 일과 말일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은 영리하게 짜 맞춘 이야기가 아니며, 진실한 사람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호소이다. 그가 주님과 가까웠던 것도 그의 아내에게 쓴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을 쓸



바울과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그들의 거룩한 접촉이
직접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 예언자 모두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면전에 있었으며,
둘 다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때 출판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었다. 수많은 예 가운데 하나만 인용하면, 그는 1832년에 부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연되는 것에 관하여 쓰면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축복을 주시도록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신의 친구이자 위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했다. “나는 내 생명을 그분의 손에 맡겼오. 나는 그분의 부름이 있으면 갈 준비가 되어 있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내 생명이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의 뜻을 행할 따름이오.”^⑧

이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의 사명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고린도인이 부활을 의심했을 때, 바울은 다만 자신이 왜 참되지 않은 것을 위하여 불편한 생활을 하고, 매시간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고 물었다. 한번은 자신이 성역을 행하며 겪은 역경 몇 가지 열거했다.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후 11 : 24-28)

요셉 스미스도 희생에 의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했다. 그도 부당하게 체포하려는 것을 피하여 수개월 동안 나무 안과 밖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인간의 시기나 분노는 나의 일생을 통하여 매일과 같이 겪는 일임……고난을 영광으로 여김이 바울과 같이 된……”(교성 127 : 2). 참으로 예언자는 자신의 시련을 전부 다 요약해서 말하지는 않았으나 요셉 자신이 리버티

감옥에서 자신의 일생의 짐을 이야기하면서 말한 것처럼 어떤 역사가든지 쉽사리 바울의 공식을 취하여 요셉 스미스의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교성 122 : 5 참조)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겨누고 죽이겠다고 위협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한번은 두들겨 맞고, 쿨타아르킬을 당하고, 거기에 닭털을 꽂은 후 의식 불명 상태로 내버려진 적도 있었다. 그는 두 번이나 주님의 일로 여행하는 동안 마차의 말이 미처 날뛰는 위험을 겪었다. 그는 적을 피하기 위하여 뒷길을 가고 늪을 헤쳐 나갔다. 그는 수로로 기선을 타고 위험한 여행을 수없이 했을 뿐 아니라, 왕국을 위하여 여러 해 동안 불편한 여행을 여러 번 했다. 그는 부당하게 법질차에 의하여 여러 해 동안 고통받았고, 그로 인하여 그의 집이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로 긴 거울을 더러운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는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과 자기 가족 및 같은 성도들의 복지를 염려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획하는 책임을 계속해서 수행했다.

왜 바울과 요셉 스미스는 이런 일을 했을까? 복음과 부활과 심판의 참됨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가 시현을 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박해받음으로써 이런 심정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가 거짓을 말한다고 했으며,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하여 조롱받으며 욕설을 들었던 때와 똑 비슷한 심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그가 실제로 시현을 보았다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시현을 보았으며, 자기에게 시현이 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아래 어떠한 심한 박해도 이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었으며,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여 죽인다 할지라도……나의 경우도 그와 똑 같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 : 24-25)

요셉 스미스는 옛날에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계시는 종교의 역사이지 종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된 종교는 현재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

바울과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은 서로 일치하며, 개인적으로 참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계와는 달랐다.

순교

바울이나 요셉 스미스 두 사람 다 처음에 박해받을 때는 안전할 것을 예언했으나 자신이 죽을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딤후 4:6)

요셉 스미스는 1842년부터 자기 일은 사실상 끝났으며,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844년에 체포당하는 것에 동의하고, 포드 주지사에게 담대하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이 법적 절차는 “피에 굶주린 어떤 악한이 우리를 총으로 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⑩ 당시의 여러 인지에서 요셉이 카트리지 감옥으로 가는 길에서 보인 태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윌라드 리처드는 예언자가 순교하던 날 카테지 감옥에서 한 말을 기록했다. “나의 안전이 굉장히 불안하며 이전에는 결코 이렇게 않았읍니다. 나로서는 이 불안을 어쩔 수 없읍니다.”^⑪ 물론이 아닌 그의 담당 법관은 순교하던 날 아침에 요셉이 “살아서 내일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그는 살해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으며, 느꼈던 그대로 일이 진행된 것이 입증되었다.”^⑫

우리는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과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두 예언자의 현신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두 사람 다 사명감에 불탄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자기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요셉 스미스도 똑같이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말로 이 일에 몰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물러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설 수 없읍니다. 나는 이 진리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이 없읍니다.”^⑬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섰던 이 두 예언자들은 매일매일의 긴급함과 자기 주변에서 진행되는 영원한 사업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생애는 그들의 메시지의 참되고 예언자로서 자신의 부름이 참되다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 *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교수인 리처드 엘 앤더슨은 4 자녀의 아버지이다.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 제11스태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다.

주

1. 앤드류 에프 에हत 및 린든 더블류 쿡, 요셉 스미스 말씀(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연구 센터, 1980년) 12페이지. 일기 내용을 다시 상술하는 이 서적의 인용문은 구두점을 찍어서 인용할 수 있다.

2. 팔리 피 프렛, 팔리 피 프렛 자서전(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9년), 298페이지.

3. 요셉 스미스가 사이러스 스미스에게 1833년 9월 26일에 쓴 것.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루시 스미스, 간단한 전기(리버풀, 1853년), 208페이지에 인용.

4. 예, 에हत 및 쿡, 10, 164,

230페이지 참조.

5. 에हत 및 쿡, 5페이지.

6. 같은 책 14페이지.

7. 프렛, 195-197페이지 참조.

미주리주 인디펜덴스에서 얼마나 영성하게 그를 보호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리치몬드와 리버티에서 철저한 구금을 당하기 전의 일이었다.

8. 리처드 로이드 앤더슨의 “요셉 스미스의 순교에 관한 예언” 참조.

시드니 비스케리 심포지움, 1980년 1월 26일(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교육, 1980년), 9-10페이지 참조.

9. 에हत 및 쿡, 123페이지.

10. 요셉 스미스가 1840년 10월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십이사도에게 행한 말씀, 딘 시 계시의 요셉 스미스의 개인적 기록(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4), 481페이지 인용, 또한 비 에이치 로버츠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8년), 4: 227.

11. 에हत 및 쿡, 355페이지.

12. 같은 책, 113페이지.

13. 요셉 스미스가 엠마 스미스에게, 1832년 6월 6일, 인디애나주 그린빌, 원래 시카고 역사회에서 계시가 인용, 239페이지.

14. 요셉 스미스가 토머스 포드에게, 1844년 6월 22일, 교회 정사 6: 540.

15. 윌라드 리처즈, 요셉 스미스 일지, 1844년 6월 26일, 교회 역사과 원본.

16. 제이 더블류 윌츠 대령, “물론 예언자,” 데일리 데모크라트, 아이오아주 오툼와, 1885년 5월 10일.

17. 에हत 및 쿡, 179페이지.

한 번의 희생, 두 배의 축복

매리 앤 영

어떻게 우리가 소중한 아기를 달라고 해놓고 막상 줄 때 그 아기를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여러 달 동안 기도하고 애원하고 바란 후에 어떻게?

어쨌든 한 예쁜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며, 우리는 그 애가 우리를 위한 아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느라고 애쓰는 동안 1개월 전의 1월 어느 한 밤중에 이상한 전화로 시작된 그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언제나 밤이면 조용했습니다. 어린애 침대에는 우는 아기도 없고, 화려한 아기 장난감도, 침실 문고리로부터 걸려 있는 기저귀 걸이도 없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것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그 기념할 만한 날 밤

늦게 울렸습니다. 남편 제임즈가 전화를 받았는데, 희미하게 귀에 익은 어떤 아는 사람의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친구로부터 두 분이 양자를 맞아들이는 데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임즈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기를 양자로 맞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계속되었으며, 나는 남편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들으며 저쪽편 음성도 들을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초조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친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야. 그 여자가 그러는데, 먼 친척이 아직 미혼으로서 곧 아기를 낳게 되대. 그

처녀는 아직 어려. 직장도 없고, 아기가 태어나면 돌 볼 수 없어. 그 여자는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며, 그 아기를 양자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날 밤, 이전에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수없이 느꼈던 모든 희망과 흥분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몇 주일이 소식없이 지나갔으며, 우리의 초조한 낙관론이 시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밤 동안 우리 집에 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아기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화가 헛된 희망을 심어 주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제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양 가정을 택하는 기관이 여럿 있어. 틀림없이 어떤 기관의 사회 사업가가 그 여자와 접촉하든지 그 여자가 그들에게 갈거야. 어쨌든 그것이 아마 그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가장 좋을거야. 숙련된 사회 사업가가 있는 기관이 입양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집을 찾게 해줄 수 있을거야.” 그가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개월 동안 어떤 입양 기관을 통하여 어느 사회 사업가와 함께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어린이를 맞아들이려는 부부에게 또한, 특히 자기 아이를 양자로 보낼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미혼의 젊은 여성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내리고 추운 2월까지도 계속해서 기다렸으며 다시 고요한 밤이 왔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리자 내 가슴은 심하게 쿵쿵 울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어두움 속에서 수화기를 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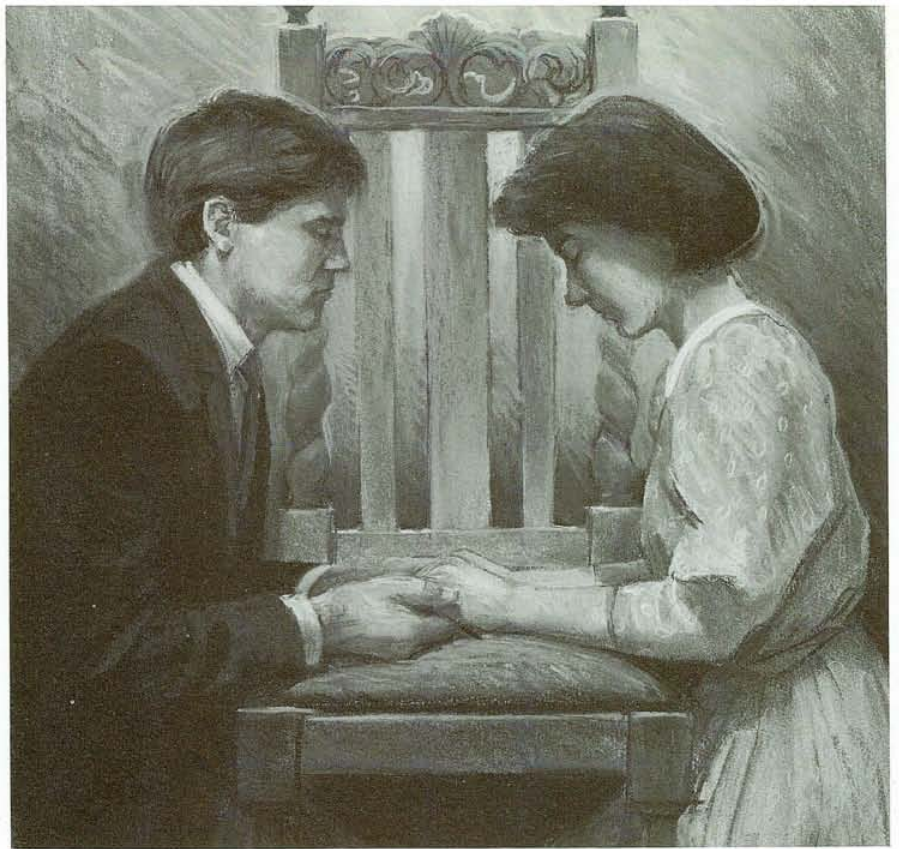
어떤 여성이 수침에 찬 음성으로 “제임즈씨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고 있지만 제가 깨우겠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지금 당장 제임즈가 필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전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임즈는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라고 더듬거리며 말하고는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가 아직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내일 다시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침대에 떨어뜨리듯이 놓았으며, 그의 눈에서는 잠이 달아났습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낳고 있어. 바로 지금 말이야. 지금 진통 중인데 곧 아기를 낳을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아기를 받을 것을 바라고 있어!”

우리 두 사람 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멍했습니다. 어디선가 누가 방금 우리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말을 아기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제임즈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 여자는 입양 기관에 가지도 않고 사회 사업가와 접촉하지도 않았어. 그 여자는 이 친척에게 다시 우리에게 전화해서 아기가 곧 태어나려고 한다고 말하게 했어. 그 여자는 그 아기를 양자로 보내려 하는거야.” 그러자 갑자기 이렇게 사적으로 입양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 두 사람이 모두 열려하고 있었으나 한번도



토의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그 이른 새벽 회담에서 모두 상세하게 토론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우리 담당 사회 사업가와 이야기해서 30년간 사회 사업 전문가로서의 경험에 의한 그녀의 조언을 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출산 중인 그 미지의 어머니를 위하여, 또한 그녀가 내리려는 결정에 관하여 마음의 화평을 갖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려고 하는 아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에 관하여 결정내릴 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한 매우 현명하고 사랑이 많은 여성과 함께 앉아 상의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불시의 전화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대신해서 결정내릴 수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 분이 결정하시도록 하고 저는 단지 제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지 알려, 또 입양 기관에서는 초조한 부부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같이 생각되는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할 때도 흔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두 분은 ‘당장 수중에 아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저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임즈씨를 그 아기 어머니의 친척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 같으면 굉장히 우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간 경험으로 배운 사실은 입양된 아이들은 보통 친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입양 기관에서는 어느 아이가 어느 가정에 가장 적합한지 알기 위하여 아이와 그의 부모가 될 사람들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합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그 아이의 의리적인 내력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두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과 전문가의 견해와 두려움과 지혜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동안, 우리 두 사람은 다 말이 없었습니다. 데기에는 부인할 수 없는 긴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우리는 무릎꿇고 기도했으며, 남편이 그의 느낌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으려고 애원했던 그런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오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기적같이 보였으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가 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 나는 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과 함께 오는 마음의 화평인 그 확신을 받지 않고 있어. 그러나 그 어머니는 내가 그 아이를 위한 집을 찾아 주길 바라고 있어. 그 아이는 집이, 좋은 집이 필요하며, 그것도 오늘 필요해.” 남편과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을지 오랫동안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과 전문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우리에게 연락했던 그 여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와 밀접하게 일할 매우 경험이 많은 어떤 사회 사업가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화를 끊고 그 사람과 접촉했습니다. 이틀 후, 그 남자 아이는 사랑받고 잘 보호받을 특별한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어디에선가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 부모의 팔에서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 의문과 후회심에 차서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문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 인간의 한정된 지식보다 훨씬 더 크신 통찰력과 이해심을 갖고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아이는 우리에게 올 아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추운 3월, 우리는 밤에는 조용히 집에 있고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경에 남편은 노래를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나는 멋진 주말을 보낸 후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인 월요일이 어째서 그렇게 흥겨운지 몰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몰라. 그저 오늘이 훌륭한 하루가 되리라고 느낄 뿐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직장에 갔으며, 유달리 바쁘게 9시 10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리 앤. 저는 캐롤입니다. 우리의 사회 사업가였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그의 음성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을 내서 사내 아이를 데려가도록 외출 허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실내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전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내 아이라고요! 정말 좋군요.

언제지요? 어디로 가지요? 지금 당장 남편에게 전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서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끊지 마세요.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하며, 그 아기에 관하여 좀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나 흥분해서 참고 듣기가 몹시 힘들었지만 그가 말을 계속하는 동안 전화에 몇 분 더 시간을 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캐롤 여사가 방금 전화했어요. 당신이 아버지가 됐어요. 그 여자가 우리에게 줄 사내 아기를 데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가서 집으로 데려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 초조해서 그 다음 말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캐롤 여사가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그 아기에 관하여 이야기했어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좀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의 이 작은 사내 아이에게는 형제가 한 사람 있어요.” 그는 “형제라니, 무슨 말이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쌍둥이예요. 당신은 똑같은 쌍둥이 소년의 자랑스런 아버지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관까지 미친듯이 차를 몰고 갔고, 기관 2층으로 격정스럽게

걸어가서 각자 2.2킬로그램의 예쁜 우리 사내 아이들이 충분한 크기의 목제 요람에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쌍둥이 아이들은 우리가 양자로 맞아들일 기회가 있었던 그 아기가 태어난 지 하루 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사업가와 이야기하며 그녀의 조언을 구하던 날, 우리 아이들은 각각 1.8킬로그램밖에 안되어 병원의 인큐베이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영아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입양할 준비를 갖추는 때까지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아기에 관하여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이 이 기구의 엄격한 정책이었습니다. 캐롤 여사와 다른 기관 사회 사업가들이 만나서 이 쌍둥이가 태어난 직후 우리를 그들의 부모로 선택하였으나 그 아이들이 태어나 체중이 늘고 퇴원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월요일 아침에 그 기관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은 17일 동안 병원에서 자라며 우리를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의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6개월이 지난 후 카터 제임즈와 제퍼슨 토머스는 신전에서 우리에게 인봉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가져다 준 기쁨은 내 능력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나는 모두 이 멋진 끈은 금발 머리 아이들이 우리를 위한 아이라고 강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자주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리 집에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를 빼앗겼을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

네 자녀의 어머니이자 간호원인 매리 앤 영은 유타주 프로보의 옛지몬트 제1와드 회원이다.



기꾸찌 장로가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행정 건물에서 자기 책상에 앉아 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고, 1977년 10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았다.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 : 변화속의 굳건함

래리 이 모리스

1977년 10월, 올겐 후주 음악이 템플스퀘어의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새로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은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는 입구 근처에 서서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 온 스테이크 부장 한 사람이 자기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알 고든 포터 형제를 소개했는데,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스테이크의 부장이었다.

기꾸찌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포터 부장님,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포터 부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기꾸찌 장로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아직 악수를 하고 있는 동안 기꾸찌 장로는 포터 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부장님이 저를 교회 회원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포터 부장은 잘 믿어지지 않는 듯이 일본에서 지냈던 시기를 돌이켜 보았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거의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수를 하는 동안 갑자기 훗가이도의 그 집이 생각났으며, 선임 동반자인 델몬트 로 장로가 그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문에서 있었던 그 젊은 기꾸찌(학생)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과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복음이 요시히꼬 기꾸찌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그를 예상하지 않았던 과도기로부터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그는 그 모든 변화를 통하여 충실하고 겸손함을 유지했다.

기꾸찌 장로의 배경은 그를 교회로 개종할 사람같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는 1941년에 태어나서 일본의 북쪽 끝, 홋카이도의 농촌 “눈 지방”에서 자랐다. 말일성도 선교사들은 전통적인 분위기로 가득 찬 국가에서 별로 성공을 거두지 않고 그가 태어나기 10여 년 전에 일본을 떠났다. 1930년대에 일본이 점점 더 군국주의화되고 미국을 적대시하게 됨에 따라 교회 조직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사실상 사라졌다.

그리고 요시히코가 태어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 하와이의 진주만이 폭격당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조금 전에 일본 군에 복무하던 요시히코의 부친이 일본에 대한 미국 폭격으로 죽었다. 요시히코와 같은 환경의 소년이 “미국” 교회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기꾸찌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친의 죽음으로 인하여 미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문에 나가서(1958년) 모자와 외투를 입은 두 미국인을 보았을 때, 나는 당연히 “아니요.”라고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요시히코가 학교에 가 있어야 할 시간이었으므로 그가 그 시간에 장로들을 만나는 것까지도 정상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병을 앓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소년으로서, 밤에는 학교에 가고,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했다. 이런 혹독한 일정으로 그는 완전히 탈진했으며, 하루는 일하다가 졸도한 것이다. 그는 퇴원한 후에 삼촌과 함께 있었으며, 로 장로와 포터 장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는 혼자 집에 있었다.

그날 정상적으로는 요시히코가 다른 곳 즉 학교나 직장에 있었을 것처럼 장로들도 그날은 준비하는 날이었으므로 하루를 쉬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최근 몇 주 동안 구도자를 많이 찾지 못했으며 로 장로가 집집마다 방문하도록 영감받았기 때문에 밖에서 방문하고 있었다.

요시히코가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을 때, 로 장로는 자신과 포터 장로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했다. 기꾸찌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건강 상태가 위험했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요셉 스미스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타주 메이플턴에 사는 로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요시히코는 매우 특별한 젊은이로서,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기꾸찌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 장로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더 기뻐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는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를 자주 표시한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미국 성도들에게 내가 나의 간증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형제 자매님들이 보존해 오신 그 유산을 내가 깊이 감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벤드, 오레곤, 새먼, 아이다호, 투엘레, 유타주 및 많은 곳에서 교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을 하며, 매주 충실히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에 공헌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다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아들과 딸을 키워 선교 사업을 내보내는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놀라운,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꾸찌 장로는 직접 선교사를 만난 이후 “황금같은 구도자”가 되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약속이 없을 때에도 집피소로 오곤 했다. 장로들을 만난 지 불과 몇 주일밖에 안된 1958년 봄에 그는 로 장로에게 침례받았다. 그 날짜는 교회 조직 기념일인 4월 6일이었다.

3년 후, 요시히코 자신이 선교사가 되었다. 그는 일본의 규슈 섬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의 생애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어떤 경험을 했다.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이었던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일본을 방문하여 선교사 대회에서 말씀했다. 거기에 참석한 일본인 장로는 요시히코뿐이었다.

기꾸찌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간증회를 가졌으며, 내가 마지막으로 간증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매우 따뜻한 영이 나에게 와서,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영어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낀 그 훌륭한 느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리로 돌아간 후, 힝클리 장로가 일어서서 기꾸찌 장로에 관하여 특별한 축복의 말을 했다. 그는 그때부터 앞으로 왕국에서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서 영어를 배우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자주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다니며 미군 라디오 방송에서 들리는 음성을 흥내냈다. 그는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것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영어가 점점 유창해졌으며, 1970년대 초에는 도쿄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하는 동안 자주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하시는 총관리 역원의 통역사로서 일했다.

어떤 귀환 선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기꾸찌 교다이’(형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문 총관리 역원과 함께 연단에 서서 항상 열심히 듣고, 연사와 똑같은 느낌으로 강조하면서 통역했습니다. 그가 결코 그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기꾸찌 장로가 이런 봉사를 한 교회 지도자 가운데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일본 성도들이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을 때),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힝클리 부대관장 및 많은 총관리 역원들이 있다. 그러나 기꾸찌 장로가 총관리 역원들과 친분을 맺은 것 가운데서도 1960년대 초기에 작은 선교사 대회에서 시작된 것이 가장 자주, 또 오래 계속되었다.

힝클리 부대관장이 자주 일본을 방문했으므로(이제 거의 40번이나 방문했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과 기꾸찌 장로는 수없이 만났다.

기꾸찌 장로는 3년 반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거기에는 복음 선교사로 일차에 걸쳐 6개월 연장한 것과 노동 선교사로 다시 12개월 연장한 것이 포함된다. 그는 1964년, 집으로 돌아온 지 2주도 안되었을 때 도시꼬 고시아와 결혼했다. 그 자매는 어릴 때 2년간 공부한 후 교회로 들어왔으며, 침례받은 지 얼마 안되어 요시히꼬를 만났다.

요시히꼬가 결혼함으로써 그의 생애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이 젊은 부부는 조용하고 전통적인 일본 북부 지역으로부터 빨리 움직이는 "서구식" 대도시인 동경으로 이사했다. 곧 요시히꼬는 남편이요 새 아버지요 사업 심리학 전공 대학생이 되었고, 나중에 요리 제품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고, 서지부 지부장이 되었으며, 이 지부는 나중에 동경 제3와드가 되었다. 그는 이 시기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기였다고 말한다.

기꾸찌 자매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으로서, 그 시기를 돌이켜 보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매분을 아껴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가 어릴 때 나타내 보인 그 정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때 그는 하루에 약 4시간을 자고 있었다. 기꾸찌 자매는 계속해서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며,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녀 자신의 열심히 일한 것과 충실성은 언급하지 않는다.

기꾸찌 장로는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마침내 정착된 생활 방식을 찾아낸 것 같았다. 그와 부인은 1남 3녀의 부모였다. 그는 동경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가족은 여전히 "서지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어떤 국제 회사에서 일본 전체에 대한 지역 판매 책임자로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화가 앞에 놓여 있었다.

1977년 어느 날, 기꾸찌 장로는 당시 동경에서 지구 책임자로 봉사하던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애드니 와이



만15세의 요시히꼬 기꾸찌가 중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단 좌)

기꾸찌 장로가 일본 요사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19세 때의 모습

고마쯔 장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고마쯔 장로는 킴블 대관장의 개인 비서인 아더 헤이콕 형제가 그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말을 했다. 바로 그날 자정 무렵에 대관장단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킴블 대관장이 전화에 나와서 그의 건강과 가족에 대하여 묻고, 그가 10월 연차 대회 때 솔트레이크시티로 여행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기꾸찌 장로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는 1년에 한번 대회에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6개월 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물었다. "그렇지만 올 수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오면 꼭 나를 만나십시오." 그는 더 이상 내용을 받지 못했다.

기꾸찌 장로는 왜 솔트레이크시티로 오라는 부름을 받았는지, 절반은 호기심에, 절반은 불안에 사로잡혀

몹시 흥분한 상태로 떠날 준비를 했으나 자기 여권이 며칠 전에 만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에는 비행기를 놓치고(기꾸찌 장로가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한번도 겪지 않은 문제였다.), 그의 부인이 지갑을 잃고, 여러 가지 좌절이 생겨 기꾸찌 장로 부부는 늦게 도착해서 대관장님과의 오후 약속을 놓쳤다. 그들은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머물렀는데, 오래 기다리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볼 대관장을 만났으며, 대관장님은 그들과 그들 가족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는 왜 그들에게 솔트레이크로 오도록 부탁했는지 이야기했다.

“기꾸찌 형제님, 주님께서는 형제님이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셨읍니다.” 기꾸찌 장로는 너무 놀라서 말이 잘 안나왔다.

그는 간신히 “김볼 대관장님, 죄송하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주님께서는 형제님이 교회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셨읍니다.”

기꾸찌 장로는 그 준엄한 순간을 회상하면서 자신과 기꾸찌 자매는 “끝임없이 울었으며,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벅찼다.”고 회상한다.

요시히코 기꾸찌는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는 첫 총관리 역원이며, 일본인 후손으로 하와이에서 태어난, 그의 친구이며 친지인 고마쯔 장로와 합류하게 되었다.

기꾸찌 장로는 예언자로부터 이 부름을 받고 기꺼이 또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아직도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그는 첫 연차 대회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그토록 높은 책임에 부름을 받게 될 것으로 결코 생각지 않았읍니다. 나는 아직도 나와 주님께, 왜 저를 부르십니까? 오, 주님? 왜 저입니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나와 형제 자매 여러분, 한편 나의 영혼속으로는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내가리다’의 음성이 들립니다.(1977년 연차 대회)

기꾸찌 장로가 선교사들과 처음 만난 것이 선교사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큰 감사를 갖게 한 것과 똑같이 일본의 작은 지부로부터 교회 본부에 있는 그의 솔트레이크시티 사무실로 옮긴 것이 그의 생각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는 이 복음이 내 생애의 전부이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국제적 또는 범세계적 교회입니다.”

범세계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기꾸찌 장로의 말씀에서 독특한 주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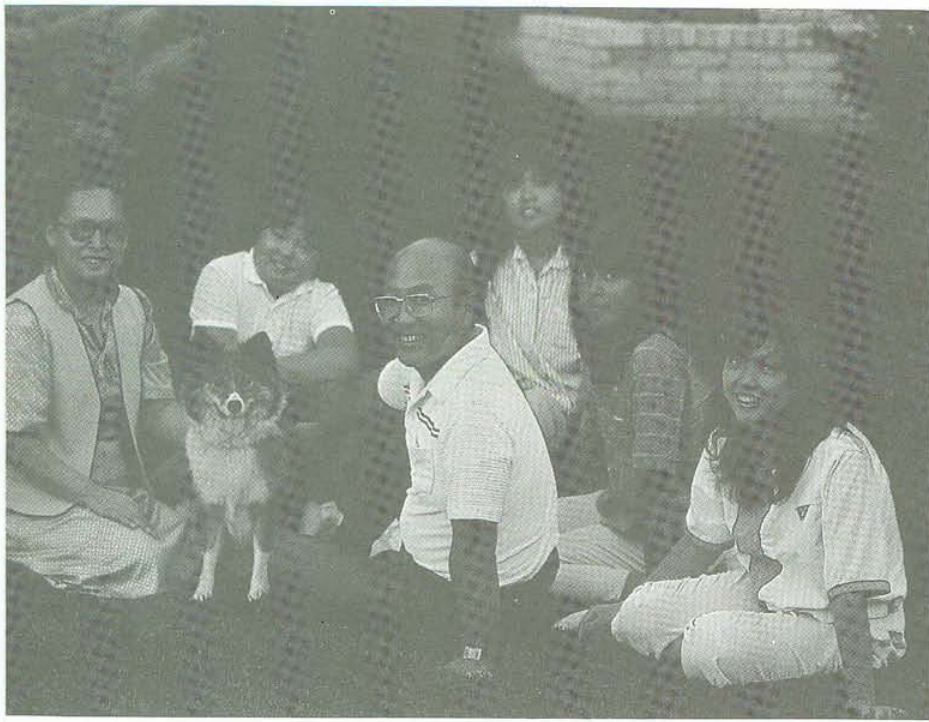
“이 참된 교회의 회원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인 영원한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를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과 나누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마주하고 설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교성 77:8)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마 5:14)” (1979년 10월 연차대회)

기꾸찌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 북 지구 회장단 보좌(그 전에는 그랜저-머레이 지구의 집행 관리자였다.)라는 현 직책으로 인하여 침례받은 후에 장로들과 함께 충실하게 참석했던 노상 전도로부터는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겸손한 시작이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유타주와 기타 다른 곳에서 자기 부름을 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관된 개념을 강조한다. 즉, 교회 회원들은 참되고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아들딸을 선교사로 내보냄으로써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그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꾸찌 장로는 침례받은 직후 자기 백성에 대한 선교사가 되었다. 나중에는 지부장이 되고 선교부장 보좌, 스테이크 부장 보좌가 되었다가 자신이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다. 그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직후 아시아에서 그의 봉사 지역이 넓어졌다. 이때에는 일본과 한국의

1941년 생후 6개월 때의 요시히코 기꾸찌





오늘날의 기꾸찌 가족(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기꾸찌 자매, 매슈, 기꾸찌 장로, 롯, 제나, 사라



1966년 여름 요시히코 기꾸찌 부부가 장녀와 함께 있는 모습

지구 집행 관리자로 지명받았다.

재미있는 일은 기꾸찌 장로 밑에서 봉사한 선교부장 가운데 알 고든 포터 선교부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포터 선교부장은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하고는 ‘당신의 구도자입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포터 선교부장은 사실상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기꾸찌 장로가 그와 로 장로가 해준 일에 다시 감사하곤 한다고 덧붙여 말한다. 포터 선교부장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

다. 수많은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단지 준비일에 전도하려 나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오후에 여분의 노력을 더 기울인 것이 한 사람의 개종을 낳았고,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기회를 가졌다. 기꾸찌 장로 자신의 개종 경험이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주님은 작은 수단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선교 사업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파급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기꾸찌 장로는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일본에서 집행 관리자로 봉사했으며,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지역 대회가 열릴 때, 또 동경 신전이 헌납될 때 거기에 있었다. 그러자 또 변화가 왔다. 한때는 낯선 도시였으나 이제는 집이 되어 있는 동경과 자기 조국 자체를 떠나 기꾸찌 가족이 모두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가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적응하는 데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려면 그저 자기가 타고난 모국을 떠나는 것을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은 상호부조회 음악 책임자이며 방문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기꾸찌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영어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꾸찌 집안 자녀들... 만19세의 사라, 16세의 레나, 14세의 롯, 10세의 매슈는 모두 일본을 떠나 새 언어를 배우는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그들은 지금 많은 친구들과 똑같이 영어로 말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기꾸찌 장로는 “처음에 우리는 향수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착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미소를 띄우며, “그러나 지금도 사시미(회) 생각이 자주 납니다.”라고 덧붙인다.

기꾸찌 형제와 자매는 늘 자녀들에게 기꾸찌 장로의 부름은 다른 어떤 부름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강조해 왔다. 즉,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주님에게 마음을 향하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부름이라는 것이다. 기꾸찌 자매는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교회에서의 부름은 어떤 것이든지 중요하며, 모든 부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기꾸찌 가족은 음악, 독서, 요리, 낚시질, 자동차 드라이브 등 많은 활동을 함께 하며 즐긴다. 기꾸찌 장로는 사려 깊고 철저한 사람에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취미 즉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및 목수일 등의 취미를 갖고 있다.

그는 이제 사십대 초반이지만 이미 그 자신은 주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로 가득 찬 특별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그의 생애에는 지속적이고 잘못 인식할 수 없는 주님의 영향의 표적이 있었으며, 그런 것이 그에게 확고한 간증을 심어 주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는 것을 알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지지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며, 이 복음은 그분의 복음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애의 중심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나팔 소리같이”

젠 뉴먼

어쩌면 내가 방종한 생활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은 한번밖에 듣지는 않았으나 그것만으로도 아직까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몇 가지 심각한 생각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름 동안 유타주 프로보시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를 떠나 정부 사무소에서 일하기 위하여 와싱턴시로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사무소의 또 다른 직원은 정식 직원으로 일할 뿐 아니라 법대에서 자기 공부를 끝내고 있는 매우 똑똑하고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여러 해 동안 교회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교리의 논리적인 면에 있어서 나보다 더 잘 알았을 것이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대화가 논쟁의 수준까지 하락했다면 그의 지적인 법률가의 마음과 혀로 인하여 경험이 없는 내가 놀라 숨도 못쉬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는 나를 혼란시키고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그의 공격은 매우 잘 계획된 것이었고, 아주 기술적으로 행해졌습니다. 한번은 오랫동안 토론한 뒤, 그가 “나는 당신을 울리는데 성공하지 못했지요?”라고 말할 때 그의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실제로 나를 한번 울렸거나 아니면 내가 그의 앞에서 울었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내가 좌절했거나 졌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격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성령이 내 뒤에 계셔서 나의 간증의 참됨을 확신시켜 주고, 맞서서 싸우고 싶은 마음을 모두 지워 주는, 평온을 채워 주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로 생각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던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주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 토론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구세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으며,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고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구원받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반면에 말일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고 극력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이외에 침례나 계명을 지키는 것 등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말일성도의 믿음은 구세주의 대속이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구세주의 대속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문의 믿음은 거의 가증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문을 설명하기 위한 온갖 형용사를 다 생각해 낼 수 있었지만 그 형용사에 기독교인으로서라는 말은 한번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수많은 가능한 반박의 말이

스쳤습니다. 침례 의식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 자신이 침례를 받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가장 지속적으로 계명을 지킬 것을 가르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일체 안했습니다. 그 대신, 그가 잠시 멈추고 숨을 쉬는 동안 단순히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는 내 생애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나의 사랑과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세주의 대속만이 나의 생애에 목적을 부여해 주는 유일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것같이 보일 때, 내가 매달려야 할 닻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온 평생이 주님의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감동적으로, 또는 훌륭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바로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잠시 조용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음성은 그 특유의 큰

음성으로부터 상당히 여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물론 가운데 나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 교회는 그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이런 성약을 맺었습니다. “...죽도록...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모 18:9)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서는 여러 해 동안 말일성도들 사이에서 살고 일하며 사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친구의 경우는 특별한 예일 수도 있으며, 사실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 대답하고 부끄럽지 않게 서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에 대하여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쁘게 그분에 관하여 간증할 이유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그분이 빛이시며 “그 빛은 만물 안에 있어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또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니, 곧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품 안에 계시며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힘이니라.

“만물을 품으시며, 만물은 저 앞에 있으며, 만물은 저를 둘러 있으며, 저는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을 통하여 계시며, 만물 주위에 계시나니, 만물은 저로 말미암아 있고, 저로 인하여 있으니, 곧 저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니시니라.”(교성 88:13,41)

그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끝이요, 세상의 구속주니라.”(교성 19:1)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골 1:15,17-19)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요 1:29)분이며,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이 안 계시면 “육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에게 속박되어 악마가 되며...”

“또한 우리의 영은 저와 같은 악마가 되며 악마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어 쫓기며, 거짓의 아비와 함께 하며 그와 더불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진실로 저와 같이 되리니.”(니이 9:8-9)

그러나 우리 구세주로 인하여 이런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혹심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교성 19:18)하게 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교성 19:16)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어 보존하시며, (우리) 뜻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모사 2:21)십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만 힘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화평과 희망과 구원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사 90:16)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나팔 소리같이 목소리를 높”(교성 33:2)이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구세주와 구속주에 대하여 간증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이 홀로 서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은 그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하여 간증하며, 그분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만물은 이렇게 각기 닮은 것이 있고 나를 증거하기 위해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나니, 속세의 것이나 영의 것을 막론하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모세 6:63)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실 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간증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마 17:5, 니삼 11:7, 요셉 스미스 2:17 참조)

우리는 흔히 사도를 하나님의 특별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계시에 의하여 구세주의 거룩하심을 알며, 주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세상에 간증을 전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맥콩키 장로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교회 회원은 누구나 사도같은 통찰력과 계시를 갖고 있어야 하며 경고의 음성을 높일 의무가 있습니다.”(물론 교리, 제 2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6년 46-47페이지)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간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영광된 기회입니다.”(1974년 4월 대회 보고) 조셉 비 위슬린 장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회의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의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곳 어느 때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대한 굳건한 간증을 전함에 있어 머뭇거리거나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형편은 모든 신권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세주를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선용해야 할 것이며,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모범으로 생활하는 데 전력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빛을 친구와 낯선 자들 앞에 공히 밝게 비치게 하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퍼져 나가게 해야 할 때입니다. (1978년 10월 연차 대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신 구속주이자 친구되시는 분에 대하여 기꺼이 증거할 뿐 아니라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니파이가 말한 옛날의 니파이인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니이 25:26)라고 한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또 훌륭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암문과 같이 느껴야 합니다. “영광드리로다. 참으로 우리 주께

매우 똑똑하고
총명한 청년이...나를
혼란시키고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그의 공격은 매우 잘
계획된 것이었고
아주 기술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일로 인하여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
대담하고 부끄럽지 않게
서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에 대하여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영광드리로다. 또한 우리가 기뻐하리니, 우리의 기쁨이 가득함이요,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로다. 보라, 누가 감히 주께 너무 영광드린다고 할 수 있으며...” 암문처럼 나도 “내가 느끼는 것 중 극히 작은 것도 다 말할 수 없”(앨 26:16)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요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은 그의 교회이고 그의 사업이며, 그것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바쳐진 많은 간증에 나의 열렬한 간증을 겸손하게 덧붙입니다. *

멀리 있는 아주 먼 옛날의 친구

페기 힐 리스캠프

그 신부는 최근에 설치한 전등을 켜으며, 갓없는 전등이 전선에 매달려 가볍게 흔들리는 가운데 나는 그 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침침한 방을 둘러보았다. 바닥은 콘크리트였으며, 그 방에 있는 것이라고는 벽에 기대서 있는 두 개의 낡고 쇠퇴해 가는 캐비닛을 제외하고는 흔들거리는 책상 한 개와 의자 몇 개뿐이었다. 신부가 우리를 위해서 닫혀진 창문을 열자, 우리는 야생 수목과 꽃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당나귀가 hing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남편 조지는 이전에 몇 번 여행할 때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굉장한 만족감을 안고 주위를 둘러보고는 신부와 함께 열방으로 기록서를 가지러 가곤했다. 나는 그 방에 혼자 남아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정말로 스페인에 온 것이다! 나는 우리가 계보 조사를 하기 위하여 스페인으로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게 보였는지, 또 일행을 모으기 위하여 얼마나 계획을 해야 했는지, 여러 주 동안 재정과 관해서 고민하던 것, 아이들을 두고 오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눈물흘리던 것, 끝없이 목록으로 써야 할 만큼 많은 일 등에 관해 처음으로 생각했을 때를 회상했다. 조지는 곧 기록을 가지고 돌아왔으며, 두터운 양피지로 가득 찬 무거운 책들을 신이나서 보여 주었다. 거기에는 신부들이 1500년도부터 결혼, 침례, 사망을 기록해 왔다. 그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나는 남편의 열의가 나를 뒷받침해 주기 바라며 그가 그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리를 잡았다.

불행히도, 며칠 몇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나에게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물리적인 환경에 전적으로 무관심한 가운데 몇 시간이고 그 기록의 페이지를 넘기며

열심히 연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상세한 것에 신경이 쓰이고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나무 의자에 몇 시간 앉아 있고 나면 견딜 수가 없게 되었고, 친구로부터 나오는 그림자로 인하여 읽기가 어렵고, 너무 추워서 밤이 되면 낮에 떨었던 탓으로 허리가 아팠다.

나의 이런 반응은 나에게 곤혹스럽고 좌절스러운 것이었다. 조지에게는 언제나 계보 조사가 흥미진진한 것이었으며, 나는 그런 일이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흥미있는 것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그 길고 좁고 힘든 시간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마침내 다른 교구의 새로운 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 가족이 새로운 가계였으므로 내가 침례와 출생에 관해서 조사하는 동안 남편은 결혼 기록서를 조사했다. 나는 세 부부의 자녀를 찾아보는 중이었지만 그 기록에 있는 어떤 가족에게 특별히 흥미를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어머니의 자녀의 출생 기록을 하나씩 찾는 동안 그 어머니를 직접 아는 것같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이들의 연령 차이는 우리 아이들과 비슷했으며, 나의 임신 시기와 새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보인 반응 등에 관하여 회상했다. 그때 나는 집을 떠난 지 2주가 되었으며, 아이들의 소음과 촉촉한 키스와 기쁨넘친 포옹으로 가득 찬 집에 대한 추억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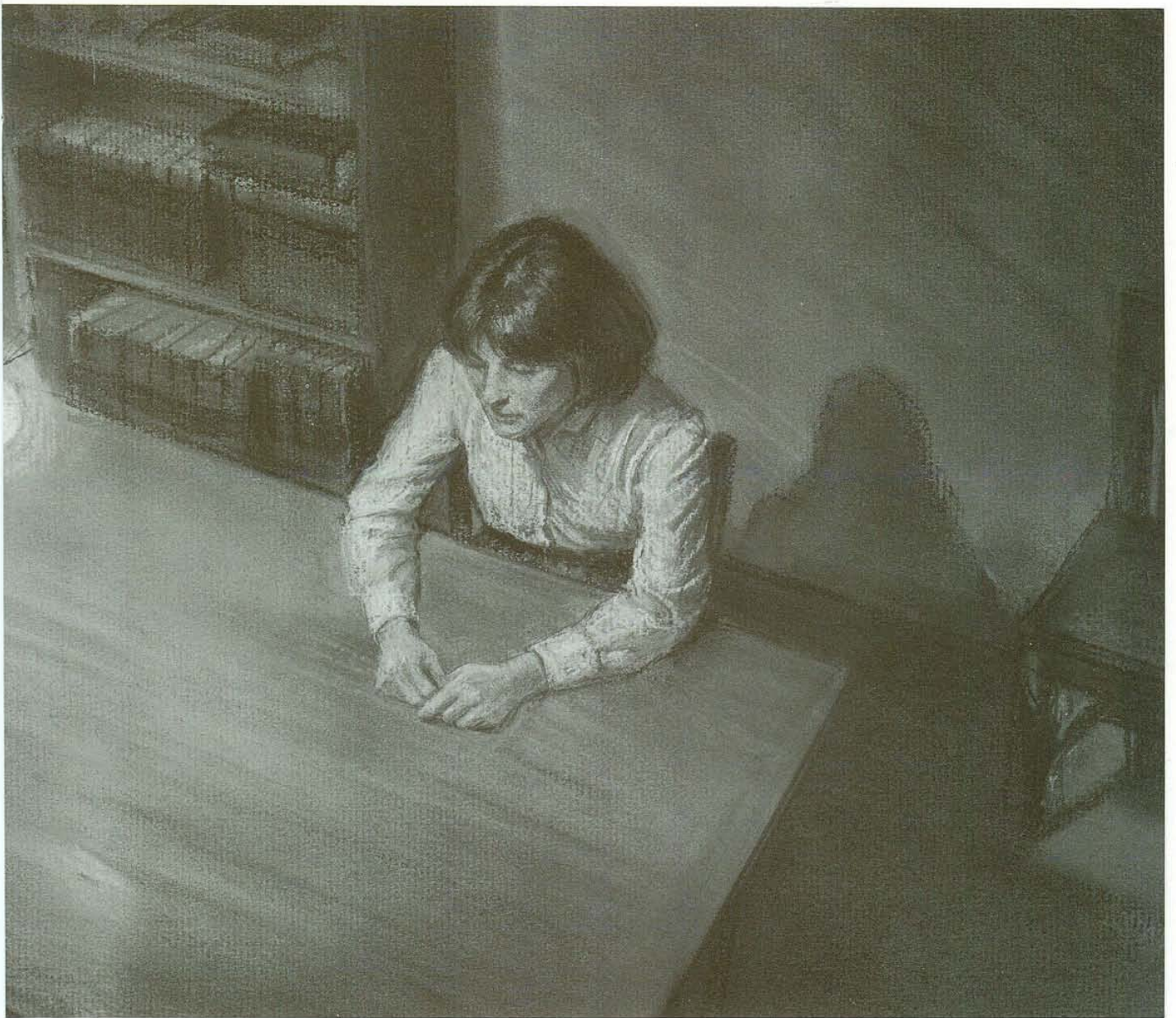
그러자 남편이 나에게 잠시 사망 기록을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나는 여전히 같은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찾은 이름이 나에게 친숙했고, 좀더 나이가 가족원 몇 사람의 사망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린이가 그렇게 많이 죽었을 것은 예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친구"의 아이 가운데 3살에 죽은 어린이의 이름을



찾아냈을 때, 내 눈에는 동정의 눈물이 고였다. 그 페이지를 넘겨 8일 후 그녀의 만6세 된 자녀의 사망 기록을 보았을 때, 내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며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똑같은 나이의 우리 아이들을 다시 생각했다. 내 무릎에 웅크린 그 어린 육체의 촉감, 집에서 나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와 목소리가 생각났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켰으므로 그 책장을 넘기며 계속해서 울고 동정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6개월 후에 죽은 것을 알고는 너무나 북받쳐서



필기하는 것을 그만 멈출 수밖에 없었고, 남편까지도 내가 흐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 이 여자가 이런 것을 겪어야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내가 평생 동안 들어오고 말해 왔던 문구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온갖 감정과 생각이 밀려들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랑하는 친구여,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아무 목적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와 하나님의

신전 덕분에 제가 당신의 남편과 자녀를 당신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 저의 가족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제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으나 그것은 화평과 기쁨의 눈물이었으며, 신전과 가족 및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겸손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스페인으로부터 돌아온 이후로 신전에 가는 것이 나에게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경험이 되었다. 나는, 옷자락에 핀으로 꽂힌 이름을

점점하면서, 이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다. 이 여성은 내가 결코 겪을 필요가 없었던 육체적인 상실과 죽음을 매우 가까이서 대처했던 것이다. 비록 내가 더운 물이나 샴푸 또는 나의 아픈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심히 주는 약 등을 그 여자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으나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복음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

네 자녀의 어머니인 페기 힐 리스캠프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와드에서 초등학교 현임 역원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숨은 보화

로리 앤 브라운

나는 우리 세미나리 반의 그 야원
아이가 정말로 패배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마음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어느 반에나 피짜 학생이 있는 것
같으며, 우리 세미나리 반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어떤 면으로 보나 완전히
패배자였다. 적어도 외견상 그랬다.
그는 야위었고, 기름기 많은 검은
머리를 끈게 빗어 내려 눈을 가리고
자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감추었다.
나는 조롱하는 투로, 그를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는 타조에 비유했다. 그는
언제나 교실 뒷쪽에 앉아 있었으며,
어떤 토론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법이 없었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사귀는

법이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나는 그가 어떤 것도 별로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반원도 대부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성구 찾기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나는 너무 놀랐다. 나는
독단적으로 그가 다른 것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았을 따름이라고 생각했다.
세미나리 종강 파티가 있던 날 밤,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날 밤은 내 마음속에서 지워질 수
없게 새겨져 있다. 나는 교회에 일찍
도착했는데—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가 이미 와 있는 것을 알았다. 다시, 나는 그가 빨리 온 것은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했다. 나는 무심히 헬로라고 하고는 “좀더 친한” 다른 반원들이 의자 정리하는 것을 도와 주러 황급히 갔다. 그뿐 아니라, 만일 내가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있었다. 첫째,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초조하게 흔들리는 자기 발만 쳐다볼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자기 자동차 열쇠를 초조하게 흔들며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는지 나타낼 것이다. 그는 내가 가까이 갈 때마다

긴장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런 어색한 장면을 피하기로 결정했다.

이윽고 파티를 시작할 시간이 왔다. 우리 선생님이 예배당 안을 살짝 들여다보실 때, 나는 다른 반원들을 정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광부가 금을 발견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기쁨에 찬 미소가 나타났다. 사실상, 숨은 보화 하나가 발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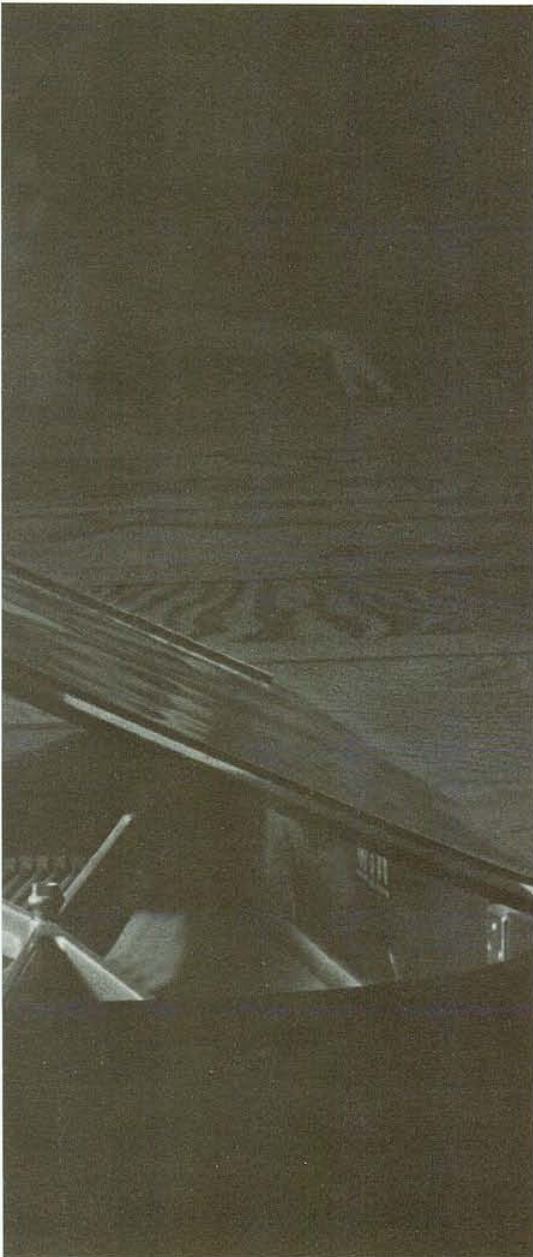
아름다운 음악이……단지 선율 뿐 아니라 감정까지 들어 있는……예배당 문을 통하여 흘러나왔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은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어떤 어린이 연주회 준비로 연습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말없는 소년인 것을 알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한 사람씩, 반원 전원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계속해서 바하, 베토벤 및 다른 사람들의 곡을 완전히 암기해서 완벽하게 연주했다. 내 양심은 내가 그를 심하게 비판했던 것을 마음 아프게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그가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즉, 내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던가! 나는 겸손해져서 그에게는 틀림없이 내 능력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다른 재능이 많이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던가.

누군가가 기침을 했다. 그는 즉시 힐끗 내려다보고는, 자기 과자 그릇에 손을 넣다가 붙들린 소년들을 보듯이 우리를 보았다. 우리는 그의 음악적인 대접을 허락도 받지 않고 먹었던 것이다. 그는 곧 얼굴이 빨갱게 되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피아노 뚜껑을 덮고 조용히 단상에서 떠났다. 그가 의자 사이로 걸어가 예배당에서 나가는 동안 나의 칭찬하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아직도 얼굴이 벌개져 있고, 더 이상 우리의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아 하면서 겸손하게 고맙다는 말을 웅얼거렸다.

모든 사람이 웃고 농담하고 미친 것

같은 행동(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을 하는 가운데 그 세미나리 파티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나를 빼고는 모두가 다 그랬다. 어쨌든, 그 작은 사건이 매우 큰 면에서 나를 변화시켰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의 외부 껍데기 밑으로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찾아야 한다. “책 뚜껑을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이 여전히 참되다는 것을 힘들게 알아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 아무것도 아니거나 패배자라고 생각되기 시작하면 내부를 들여다볼 것을 기억해야 한다. 거기에는 숨겨진 보화가 끝없이 놓여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간증을 얻기 위하여

데니스 엘 릿고우

“간증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달빛을 잡는 것처럼 잡기 어렵습니다. 매일 자기 생활에서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회원으로 자랐다. 나를 가르친 교사와 지도자는 대부분이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사랑과 복음 원리에 관한 지식 및 특히, 간증을 심어 주려고 노력하는데 있어서 열심이었고 효율적이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판장은 간증을 “성신이 영혼에게 확신을 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다. (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 편, 제5권,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9년 3 : 28) 나는 십대 시절에 여러 교사와 노변의 모임 연사들이 간증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주 쉬워 보였다.

가장 자주 인용한 성구는 모로나이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로서, 여기에서는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서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다.

또한 성신의 권세로서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가르쳐 주었고,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물문경을 번역하면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깊이 연구한 후에 주님께 그것이 옳은지

여쭙어 보라고 하셨다. 만일 그것이 올바르다면 가슴속에서 뜨거운 느낌을 받을 것이며, 옳지 않다면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될 것이다. (교성 9 : 7-9)

나는 고등학생으로서 이 권고에 따라 행하고, 복음에 관하여 나 자신의 간증을 얻도록 했다. 나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물문경을 주의깊게 읽고,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기억할 만한 구절에 관하여 노트를 했다. 다 읽었을 때, 모르나이의 약속에 관하여 굉장한 기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이 참된지 아닌지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면서 무릎꿇고 기도했다. 나는 “참마음 참뜻”과 결심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갖고 몇 주 동안 간간히 기도했으나 응답을 느끼지 못했다. 금식 모임에서 친구들은 서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에 실망하셨다. 나는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나에게 간증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 부정적할 수는 없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궁금하고 염려되었다. 어쩌면 내 생활이 주님께서 내 질문을 인정하실 만큼 훌륭하지 못했는지 모르며, 또 내가 기도하는 방식에 뭔가 잘못이 있었을지, 또는 응답이 왔는데 내가 그것을 인식할 줄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기도와 연구를 2년 더 계속했으며, 그 동안 나는 물문경을 두 번 읽었다.

그러자 감독님이 나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요청하셨다. 나는 늘 선교사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뻐으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 간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웠다.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확신시킬 것인가? 내 형도 그때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라고는 별로 없었으나 우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스테이크 부장님에게 가서 접견했을 때, 그분이 부모님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시는 것을 듣고 놀랐다. 나는 크게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섭섭한 충고의

나는 항상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어했으나
매우 걱정되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간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했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조용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는 분이셨는데 몹시 비탄에 빠지셨다. 아버지는 내가 형과 같은 시기에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 재정적인 부담을 해결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리라는 강한 느낌을 오랫동안 간직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는 옷을 입으시고 스테이크 부장님과 말씀하러 가시겠다고 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간다. 그것도 지금 갈거야.”라고, 이전에는 한번도 보이시지 않은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출발하시기 전에 가족이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축복에 감사하고, 스테이크 부장님과 말씀하는 동안 도와 주시고, 아들들이 선교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아들들을 도와 주시도록 부탁드리는 짧고 간단한 기도를 드렸다.

나는 신앙을 갖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장래를 내다보려고 애쓰는 동안,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 바로 그 순간,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받게 되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지리라고 말하는 듯한 행복과 흥분감에 휩싸였으며, 사실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다. 또 선교사로 나가서 내 말에 귀 기울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정직하고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나는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것은 굉장한 만족을 주는 경험이었다. 간증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이전의

걱정은 사라졌다.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법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부모님은 2년 동안 두 아들이 선교사로 일하도록 훌륭하게 지원하셨으며,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재정적으로 윤택해졌다.

나는 간증을 얻는 데 왜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렸는지 분석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의 부친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선교사 부름과 관련시켜 간증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는 주님께서 나의 가슴에 닿으시려고 이전에 시도하신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본 것 같은 시현을 볼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확실히 몰랐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미약한 나의 종”에게 “저희의 말로” 말씀하시며, “이는 저들로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교성 1:24)고 하셨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설명한다. 어쩌면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배우고, 내가 받고 있었던 응답을 깨닫는 것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이해하고 있다. 나는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는 젊었을 때 배운 것과 똑같은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철저히 연구하고 나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결정을 내린 다음, 주님에게 그 결정이 올바른지 여쭙는다. 그리고 나서, 점점 더 고조되는 느낌을 갖게 되면 주님이 그 결정을 승인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금식할 때는 공복 상태가 계속해서 금식의 목적을 일깨워 준다. 나는 자주 기도하며, 성신이 내 영혼에 어떤 강한 인상을 주신 것처럼 점점 더 고조되는 감동과 확신을 느낀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혼돈과 우울함을 느끼며, 마침내는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주 그분과 교통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어야 한다. 기도가 응답될 때, 또한 영적인 증거를 받을 때 오는 그 따뜻한 확신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장관은 성령이 자기 영혼에 미치는 인상이 너무나 강력해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느낀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 주셨으며,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의심을 지우셨으며, 나는 대낮에 태양이 비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듯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로렌 시 던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불빛처럼 오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교통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실로 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매일매일 고요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오게 될 확신, 마음속의 느낌 및 재확인으로써 오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 즉, 하나님에게 속한 것에 대한 지식을 순식간에 얻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보다 쉽게 온다. 나의 경우에는 응답이 올 때까지 연구, 사색, 기도, 금식 등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노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주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게 않게” 될 때까지 밤낮으로 종일간 기도하고, 영적으로 노력했다. 그가 받은 응답은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가 소망하는 것이 허용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 (이노스 1:5, 11-12) 일단 간증을 얻었으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과 함께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 영양을 주어야 한다. 해롤드 비리 대장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간증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달빛을 잡는 것처럼 잡기 어렵습니다. 매일 자기 생활에서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

마이어드 장로님 여기 있습니다

레오나드 에프 마이어드

동 반자와 함께 제 시간에 도착하려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동안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밤 공기가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 5월의 날씨는 텍사스주 특유의 덥고 습기진 날씨였으므로 시원한 밤 공기는 매우 상쾌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우리가 브라운즈빌에서 거두고 있는 성공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에는 다섯 명의 한 가족이 침례받았고, 이달에도 또 똑같은 숫자의 한 가족이 침례받게 되어 있었다. 갑자기 그 따뜻하고 친숙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엄습해 와서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무 사이로,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전에는 한번도 못 본 집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동반자인 문 장로에게 내일 아침에 그 집으로 돌아가서 몇 사람을 만나 보자고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음 날 활동을 계획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 날의 흥분으로 인하여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우리는 어떤 가족에게 침례받도록 권했으며, 그들이 그 권고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르칠 사람들을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것같이 보였다.

그날 아침은 좀 더디게 왔다. 샤워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복음 공부를 한 다음, 우리는 지난 밤에 내가 본 곳으로 향했다. 우리가 왜 전에 그 집을 못 보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고물 야적장과 덩불과 키작은 나무들 사이로 도로가 하나 있었다. 사실상 그것은 소홀길에 가까웠다. 길이 너무나 험해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기에는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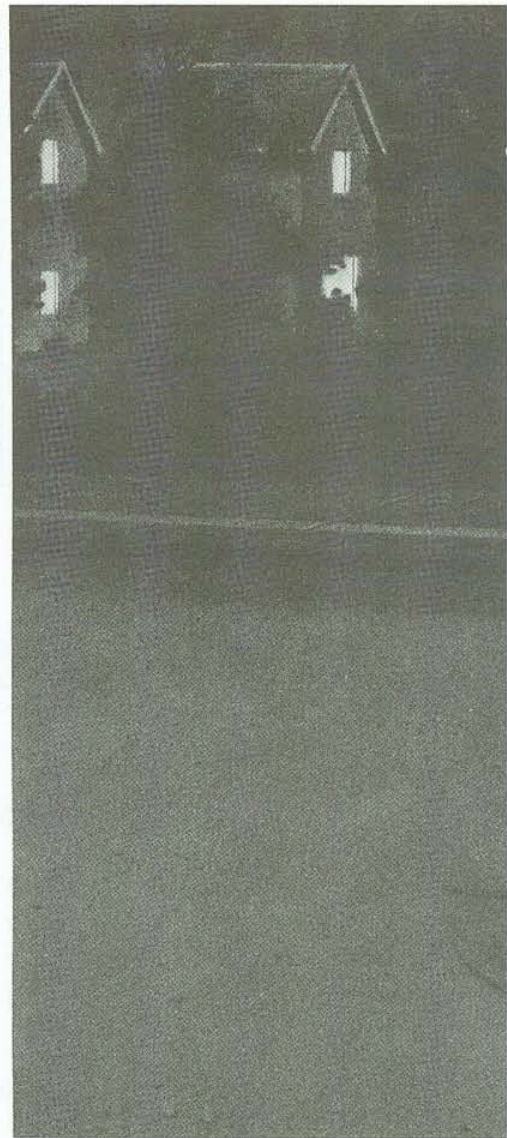
이 도로 밑에는 약 7채의 집이 있었으며, 우리는 첫째 집부터 끝까지 다 방문했다. 그렇게 한 여섯째 집이 바로 그 집이었다. 우리가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떤 여자가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보호적인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우리는 자신들을 소개하고, 주님에 관하여 간단하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그 여자는 우리를 방이 두 개뿐인 작은 집으로 맞아들였다. 거실에 들어갔을 때, 만11세부터 2세까지의 다섯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우리를 영접했다. 우리가 말을 걸자 아이들은 킁킁거리며 웃었다. 우리는 그 여자에게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다시오고 싶다고 했으며, 그 여자는 그날 밤에 다시 오라고 했다.

그날 하루 종일 내 머리는 우리가 이 가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맴돌았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승인을 받아 이 가족이 교회 회원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점심 시간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도중에 어떤 두려운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곧 십일조였다. 그날 아침 일찍 방문했던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십일조 원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일어난 것이다. 그 7명의 가족과 필요한 가재 도구를 간단히 갖추고 있는 그들의 집을 생각했다. 부엌에는 식탁과 의자뿐이었다. 다른 방은 커튼으로 반씩 나누어 구분해 놓았는데, 그것이 침실겸 거실이었다. 그 방에 있는 가구라고는 의자 하나와 낮은 침대 하나뿐이었다. 이 가족이 어떻게 십일조를 계획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에 가르쳤던 사람들 가운데는 십일조를 정직하게 내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있었으므로 하루 종일 이것에 관하여 염려했다. 나는 우리가 이 가족에게 십일조의 원리를 가르칠 시기가 오기 전에 그들이 강한 간증을 얻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나 그의 가족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려 돌아갈 때, 다시 시원한 저녁 공기가



내 얼굴에 기분 좋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우리가 그들을 방문하여 주님의 참된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설명하는 동안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간단히 기도한 다음, 필름스트립 행복의 추주로 시작했다. 이것이 어린이들의 관심을 지속시켜 줄 것이며, 부모들은 언제나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전세를 떠나는 것에 관한 장면에서 슬쩍 어머니를 보았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 흔적이 있는 것 같았다. 죽음과 우리의 영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 다시 그녀를 흘깃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했다. 그 상냥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으며, 얼굴에는



절반까지 눈물이 흘러내려 있었다.

그 필름을 다 보았을 때, 아직도 그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필름에서 가르치는 개념의 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됨에 관하여 즉시 간증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토론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했다. 그것을 훌륭하게, 아주 훌륭하게 받아들였다. 그 다음날 밤에 토론하자고 약속을 하고 기도한 다음, 우리는 길을 떠났다.

그 집 앞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십일조의 원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생각했다.

몬 장로와 나는 아파트에 도착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족에게 강한 간증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길을 마련해 주시도록 기도드렸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각자 기도드릴 때, 나는 보통 때보다 좀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십일조의 법을 가르쳐야 성령이 그들에게 강한 간증과 그것을 지킬 열의를 갖도록 하실 수 있을까?

그 가족은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공과를 가르칠 때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경험이 되었다. 회원들이 그들을 방문하여 교회로 데려가 주었다. 마침내 침례받으라는 목표를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 단계는 여러 가지 계명에 관한 공과였다. 나는 그것을 좀 약삭바르게 배정하여 내 동반자가

나는 우리가 이 가족에게 십일조의 원리 (어떤 사람에게서는 장애가 되는)를 가르칠 시기가 오기 전에 그들이 강한 간증을 얻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십일조에 관한 개념을 가르치게 했다. 즉 내가 첫번째 개념을 가르치고, 십일조에 관한 두번째 개념은 동반자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세번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 가족에게 십일조의 법을 지키도록 부탁하고, 그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은 너무나 빨리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공과를 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첫번째 개념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다. 내가 두 마디 말도 채 끝내기 전에 그 아버지가 열심히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며, 내 동반자가 거기에 대답하고, 계속해서 내가 가르쳐야 할 개념을 다 끝내었으며, 이제 내 차례가 되어 십일조를 가르치게 되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한 다음 확신을 갖고 계속했다.

나는 십일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며, 그것이 고대에 어떠한 계명이었으며, 또 지금 시대에 어떻게 계명이 되는지 설명했다. 그리고는 내가 무서워하는 부분 즉, 그 가족에게 십일조의 법을 지키도록 부탁하는 부분이 왔다. 이 훌륭한 형제가 그러겠다고 대답했으나

나는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그것을 듣지 못했다. 나는 황급하게 그 개념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으며, 그 다음에야 그가 예! 라고 대답한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반복해야 할 부분에 와서 나는 확신을 갖고 다시 “십일조의 법을 지키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다시 대답은 예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이것이 참된 계명이며 많은 축복이 뒤따르리라는 간증을 했다.

그 가족이 침례받기 꼭 1주일 전인 그 다음 일요일에 나는 열심히 그들을 찾았다.

주일학교가 시작될 때 그 가족은 거기에 오지 않았다. 어디에서도 그들을 못 보았다. 어쩌면 그들이 전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결정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시 십일조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 성찬식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그 가족이 정문을 통하여 들어왔다. 나는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했다. 나의 입이 한쪽 귀에서 다른쪽 귀까지 벌어지도록 웃음을 먹음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 먼 길을 걸어왔다고 했는데, 적어도 15리는 될

것으로 생각되는 길이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두 어린 아이를 안고 업고 왔던 것이다.

우리는 모임이 시작할 시간에 꼭 맞게 자리에 앉았으며,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족에 관한 것뿐이었다. 나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범인가. 내가 그들을 안 지는 3주밖에 안 되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성찬식이 끝난 후, 그 어머니가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이어드 장로님, 여기 10불이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2주일에 한번씩 급료를 받으며, 우리는 지금부터 십일조 내는 것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거기에 영원히 서 있을 것처럼 서서 그 진실하고 겸손한 어머니를 쳐다보기도 했다. 나는 그 10불을 쳐다보았다. 그 남편은 한달에 200불(17만원 정도)을 벌며, 그런데도 그들은 기꺼이 십일조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얼마나 충실한 가족인가! 아마 내가 너무 오랫동안 주저했던 모양이다.

어머니가 “이것으로는 부족합니까?”라고 말했다. 순간 나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나는 감독단 제2보좌를 찾아서 이 훌륭한 자매에게 현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가 그 자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동안 나는 조용히 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눈물을 억제하려고 애썼으나 “마이어드 장로님,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귀에 메아리쳤다. 나는 이 훌륭한 기회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주신 간증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감사드렸다.

가족은 그 다음주에 침례받았다. 선교사 생활을 끝내고 귀환해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온 지금까지도 나는 여전히 이 훌륭한 가족에 대하여 생각하며, 그들이 십일조에 관하여 나에게 가르쳐 준 위대한 교훈에 대하여 늘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십일조를 낼 때마다 그 훌륭한 자매님이 “마이어드 장로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까?”하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

야오시

리차드 타이스

“천절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이전에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은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시도록
여러 번 당신께
간구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시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오늘 밤
아파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께 이런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아멘.”

앤 더슨 장로와 나는 두 아파트의
뒤를 살펴며 빈 창문을 찾았다.
발코니 너머로 의복이 건조대에 걸려
있었다. 발코니 난간에는 색채도
다양한 요와 누비로 된 이불이 걸려
있었다. 몇몇 여자들이 대나무로
그것을 두들겼다. 우리는 패배감에
젖었다. 아직 아침 10시 반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원기가 빠졌다.
동반자는 “자, 오늘이
그날입니다.”라고 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 찾을
겁니다.”

우리는 확신했으나 오늘도 역시
금요일이었으며 내일이면 새로운
선교사가 오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 선교부에서 새 지부 3개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
하나를 이곳 야오시에다 개설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오늘 새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찾아야 했다.

앤더슨 장로가 자그마한 과일점을
가리켰다. “타이스 장로, 과일을 사
드리겠습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느군요.” 그는 은빛을 띤 푸른
눈에 금갈색의 머리카락과 주근깨가
있으며, 나의 유색 피부와 검은색
머리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노란색 배로
아파트 찾는 것을 미리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을 찾아 낸
다음에는 내가 당신을 도넛츠씨의
도우넛 가게에서 바바리안 크림과
나무 딸기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요. 도우넛이야말로 내 발의
물집을 잊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껍질이 얇고 엷은 노란색의
배를 골랐는데, 그것을 깨물면 바스락
부서지고 수분이 충분했다. 우리는
오래된 목조 가옥들 사이에 작은
공원을 찾아 냈다. 길거리에서 먹는
것은 무례하지만 공원은 비교적
편찮았다.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꼬마 네
명이 노는 것을 멈추고 외국인을 뵈하
쳐다보았다. 그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뵈하 쳐다보지 말라고 하며,
고개를 돌리게 하려고 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본말로 “괜찮습니다.”라고
안심시켰다. 그러자, 손과 팔목이
강한 앤더슨 장로가 그 배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 놀란 어린이들에게
주었다.

우리는 일본말로 자기 소개를 했다.
“저는 타이스 장로입니다.”

“저는 앤더슨 장로입니다.”

나는 앤더슨 장로가 손을 담도록
나의 클리벡스를 주었다. 몇 명의
여자가 킁킁거렸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명함을 주고 그들의 주소를
적고는 한참 동안 몸을 구부려 절한
다음 그곳을 떠났다. 길이 굽어지는
곳에서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아파트 하나를 찾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벌써 이주 반이나 지났어요.

우리는, 선교사들이 숙소를 찾으면,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는 이 도시를 좋아합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다시 집의
숫자가 더 적은 간선 도로에
도달했으며, 그 도로는 고속 도로로
연결되었다.

“타이스 장로, 아까 자리로
되돌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요?”

도로 저편의 표지판이 침침한 저녁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몇 대의 차가 빠르게 지나쳤다.

나는 “이 길이 마을로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고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7시입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탈 기차 시간까지
두 시간 남았어요.”라고 말하자 그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주택가가 끝난 곳에 논이 펼쳐져
있었다. 벼가 크게 자랐고, 저녁이
되어 발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미소를 띄며 이렇게
말했다.

“벼 이삭에서 낱알을 떼내 먹어



봤습니까?”

“그저 딱딱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 가장 재미있어요.” 나는 여섯 개의 낱알을 따서 그에게 3개를 주었다. “나는 이것을 두 번밖에 안해 봤어요. 나는 그들의 쌀을 다 먹어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동반자는 미소짓기 시작했다. “아마 일본 전체에서 생쌀을 먹는 사람은 당신뿐일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도 두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쌀 알맹이가 보일 때까지 단단하고 푸른 껍질을 문질렀다. 앤더슨 장로는 한 개를 입에 넣고 꺾 깨물었다. 그 쌀이 부서졌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삼키고, “이것이 재미있습니까?”하고 물었다.

나는 “물론 재미있지요.”라고 대답했다.

우리 주변의 나무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우리는 잠시 동안 그것을 지켜 보았다. 내가 “우리 다시 기도해 볼까요?”라고 물었다.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건물 몇 채 지나서 아래에 있는 골목길을 가리켰다. 작은 잡화점 한 개를 제외하고는 그 통로를 따라 줄지은 상가는 모두 문을 닫았다. “저리로 갑시다. 저기가 은밀할 것 같군요.” 우리는 길을 건너 그 골목으로 들어갔다. “앤더슨 장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꺼이 하지요.” 우리는 마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친절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이전에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은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시도록 여러 번 당신께 간구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시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오늘 밤 아파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께 이런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유쾌해졌다. 우리는 오른 손의 손등을 위로 해서 앞으로





“당신들은 양복을 입고 있군요. 만일 당신이
청바지에 장발을 하고 왔다면
나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히고, 앤더슨 장로의 손 밑에 내 손을 걸쳐 넣고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손을 위로 뻗쳐 올렸다.

나는 “저쪽으로 가면 부동산 중개소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그 앞을 지났지만 그때는 문이 잠겨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도로는 더 이상 텅빈 상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집 앞에서 시원한 저녁을 만끽하며 담소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부동산 중개소에 도착했으나 아직도 문이 잠겨 있었다. 내가 문을

두드렸다. 한쪽편으로 그 빌딩과 그 옆의 목조 가옥 사이에 작은 통로가 있었다. 약 90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떤 훌륭한 중년 남자가 골프공을 컵에 던져 넣고 있었다. 그가 한번은 잘못해서 그 공이 우리 쪽으로 굴러왔다.

나는 즉시 달려가서 그것을 집어 그 사람에게 건네 주었다. 그는 일본말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일본말로 “천만에요.”라고 대답했을 때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뜬 것을 보면 내가 일본인인 줄 알았던 것이 분명하다. 앤더슨 장로가 앞으로

나섰을 때 그 눈이 더욱 동그레졌다.

그 사람은 가이진입니까?라고 물었다.

가이진이란 말은 외국에서 온 사람을 뜻하는 가이교꾸진을 흔히 줄여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에게 이 부동산 소개업소가 누구 소유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검지로 자기 코를 가리키면서 “저의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앤더슨 장로는 “주인을 만나게 되서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그 중개인은 놀라서 뒷걸음질을 했다. 그리고 골프공을 떨어뜨렸다. “당신도 일본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두 분 다 참 잘하시는군요. 미국인입니까?”

내가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아, 캘리포니아요. 따뜻한 양과 오렌지, 언젠가는 샌프란시스코에 가 볼겁니다.” 그는 앞으로 나가더니 문을 열었다. “들어오시지요.” 그리고는 의자를 당겨 놓고 소형 냉장고에서 칼피스를 한 병 꺼내서 수건 위에 컵 3개를 오른쪽을 위로 해서 돌려놓았다. 그는 컵에 농축액을 조금씩 붓고 찬 물을 섞었다. “술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일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그거 좋습니다.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얼굴이 벌게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컵을 가져다 주었다.

“참 훌륭한 젊은이들이군.”이라고 말하고는 “우리 인사나 할까요? 저는 유수께 모찌다입니다.”라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모찌다씨. 저는 타이스 장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앤더슨 장로입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힘차게 악수했다. 내가 말을 시작했다. “어쩌면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네 명의 남자 선교사들이 쓸 방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6조짜리 방 2개, 45조의 부엌, 욕실, 수세식 변소가 있어야 합니다.” 한 조는 다다미 한 장 넓이에 해당한다.

“좋아요. 큰 아파트를 찾는 모양인데, 나에게 몇 개 있어요. 도면을 몇 장 가져 오겠습니다. 우리에게는 8조짜리 방 2개가 있는 새 아파트가 있으며, 보증금 75만 엔에 월세 3만 5천 엔입니다. 아주 싸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책상으로 갔다.

“그것이 문제군요. 우리는 보증금 50만 엔에 월세 2만 8천 엔밖에 못씁니다.”

그는 우리를 돌아보았다. “불가능합니다. 오사카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런 크기로는 넓은 집이라도 60만 엔까지 갑니다.”

그는 자기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흔들었다. “좀더 낼 수 없겠습니까?” “선교부에서 우리가 임차하는 모든 아파트의 기준을 정합니다.”

앤더슨 장로가 “우리는 2주일 이상 야오시를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기대에 차서 모찌다씨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야오시에서 가장 큰 소재지를 갖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는 전화를 집어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여보세요, 아주머니세요? 저 유수께입니다. 예, 그 사람 있습니까? 예.” 그는 우리를 쳐다보며, “그 사람이 집에 있습니까.”라고 하다가 말문을 멈추었다.

“아, 그래. 이젠 업무적인거야. 여기 미국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를 찾고 있어. 6조 방 두 개, 부엌, 욕실, 수세식 변소. 그래, 나도 있어.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야. 보증금 50만 엔에 월세 2만 8천 엔이야. 그래……그렇지만 이 사람은 일본말을 해……아……그래……자네가 직접 말하게. 염려마.” 그는 우리에게 서둘라고 했다. “그에게 방이 있지만 당신에게 빌려 주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는 전화기를 나에게 넘겨 주었다.

나는 “여보세요.”라는 말밖에는 생각해 낼 수가 없었다.

“여보세요, 일본말 할 줄 압니까?” 그것은 질문이기보다는 의심하는 투였다.

“좀 합니다. 저는 1년 9개월 동안

일본에 있었읍니다.”

“상당히 잘하는군요. 미국에서 일본말을 오랫동안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와이에서 두 달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했읍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지요?”

“학교는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입니다.”

“기독교회요? 실망시켜서 미안합니다. 유스께씨를 지금 좀 바꿔 주십시오.”

나는 어리둥절해서 위로 쳐다보았다. “전화 좀 바꾸어 달랍니다.”

모찌다씨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예, 이렇게 하지.

그래……이 사람들을 만나도 해되는 것은 없을거야……만나본 적 있나?

그래……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지. 그냥 인사만 나누게.” 그는 전화를 끊고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는 정말로 매우 친절합니다. 자, 우리 갈까요?”

그 파란 타일로 된 사무실은 새 건물로서, 전면은 거의 다 우리로 되어 있었다. 모찌다씨가 차에서 내리고, 우리도 비좁은 뒷자석으로부터 기어 나왔다.

모찌다씨가 문을 조금 열고는

“제십니까.”라고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주홍색과 푸른색으로 된 무명 기모노를 입은 날씬한 여인이 열 커튼으로부터 창자와 주전자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그 여자는 쟁반을 내려놓고 현관 앞에 멈춰서서 우리 쪽으로 발을 끌며 왔다. 모찌다씨가 문을 활짝 열었다.

그 여자가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한 다음, 우리는 현관으로부터 마루 바닥으로 올라서며 구두를 벗고 슬리퍼를 신었다. 약 168센티미터의 단단하게 생긴 사람이 뒷문을 통하여 급히 들어왔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앤더슨 장로와 나는 인사하고 우리들을 소개했다.

그 주인은 즉시 답례를 했다. “저는 세끼 니지로입니다.” 그의 부인이 우아하게 미소짓고는 친철히 절했다.

주인은 앤더슨 장로를 보았다.

“당신도 일본말을 할 줄 압니까?”

“예, 일본말을 할 줄 압니다. 저는 일본에 온 지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이스 장로만큼 일본말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당신들은 양복을 입고 있군요. 만일 당신이 청바지에 장발을 하고 왔다면 나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앤더슨 장로가 “우리는 모두 양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합니다. 그것은 선교사 규칙입니다.”라고 말했다.

“자, 앉으십시오.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의자에 앉았다. 모찌다씨와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내가 말을 시작했다. “이주 반 동안 우리는 매일 아파트를 찾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내일까지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아파트 건물은 조용한 동네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혼 부부용입니다. 그들은 자기 아파트를 잘 돌봅니다. 학생들은……”

나는 얼른 “선교사입니다.”라고 했다.

“에……선교사라…… 독신에게는 빌려 줄 수 없어요. 그들의 뒤에서 깨끗하게 청소해 줄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방은 너저분해집니다. 신혼 부부들이 좀더 양심적이지요.”

나는 “우리는 선교사 규칙에 따라 우리 아파트를 깨끗이합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청소합니다. 또 검사도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담배와 콩조를 온 사방에 흩어 놓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 저희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세끼씨가 침을 튀겼다. 모찌다씨는 감탄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앤더슨 장로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담배피우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두 사람 다 고개를 끄덕였다. 세끼씨의 부인이 그 조용한 틈을 타 차를 좀 따라 주었다.

나는 더듬으며 “실례지만 이것이 차입니까?”라고 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보리를 곱게 태워서 만든다. 여름에 이것을 자주 접대한다.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쉬며

“좋습니다.”라고 했다.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차의 앞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안 마십니다. 우리는 커피도 안 마십니다. 이것은 건강에 관한 우리의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부인이 붓는 것을 끝냈다. “굉장히 엄격하군요. 그렇지만 염려마세요. 이진 보리차입니다.” 그녀가 우리 앞에 차잔을 놔 주었다. 그 물이 너무 뜨거워서 옆면에 손을 대고 있을 수가 없었다. 세끼씨가 원기를 회복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눅차는 몸에 좋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책임성이 부족해 당신들이 몇 시에 귀가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당신들로 인해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게 할 수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앤더슨 장로가 이렇게 대답했다. “선교부에는 9시 반이 통행 금지 시간이며, 선교사는 모두 10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도 나서서 “우리는 6시 반까지 기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세끼씨는 자기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흔들었다. “그래도 빌려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가족은 모두 신혼 부부가 될 겁니다. 당신네들은 하루 종일 출입할 겁니다. 라디오를 늘 켜놓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겁니다.” 그는 갑자기 불쑥 일어서서 음성을 높였다. “남편들은 나가 있고 부인들만 집에 있을 겁니다. 그건 온당하지 못할 겁니다. 부도덕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부인네와 총각들이라! 그리고 젊은 여자는 어떡하지요? 누가 그들을 막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잠깐만요.”라고 내가 외쳤다.

앤더슨 장로가 따라 일어섰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세끼씨가 뺨을 움푹하게 했으며, 부인이 그에게 보리차를 좀 따라 주었다. 그는 차잔을 들어올려 짹짹거리는 소리를 내며 들이마시고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뚫어지게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주님과 중요한 약속을 몇 가지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를 순결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후에는 끝까지 부인에게 충실합니다. 선교사들은 특히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런 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이런 계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명예롭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또 우리는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은 데이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선교사들뿐입니다.” 나는 노여움이 거의 다 사라지고 죄스런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밑을 내려다 보았다.

“물론 주인은 예외입니다.……제가 너무 흥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끼씨는 손을 흔들었다.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될 겁니다.”

앤더슨 장로가 열심히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세를 들면 아주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본어 공부 및 복음·공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시 30분이 되면 하루 일을 하러 가고 점심 시간에만 들어옵니다. 우리는 팝송 음악을 들으면 안되며, 대부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씩 웃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도 미소짓게 만드는 호감가는 미소가 있었다.

“자, 자, 탁주를 좀 드시다.”

그의 부인이 일어서기 시작했으나 그때까지 잠잠했던 모찌다씨가 끼어들었다.

“이 사람은 탁주도 안 마십니다.”

“그러면 맥주를 주지요.” 맥주는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다.

“그들은 맥주도 안 마십니다.

알콜은 일체 안 마십니다.” 그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두 사람 모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나도 술을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술을 끊는 날에는 나도 끊지.”라고 말하며 세끼씨가

웃었다.

“글쎄, 항상 조금씩 적게 마실 수 있지요.”

“그래야지요. 그러면 적어도 문 앞에 빈 맥주병 상자가 쌓이는 것에 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는 말을 멈추고 일어섰다. “우리 도면을 볼까요?”

“우리에게 아파트를 빌려 주시겠다는 뜻입니까?”……나는 방금 들은 말을 믿기 어려웠다. 나는 눈물을 삼키기 위해 한참 눈을 깜빡거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수건을 꺼내서 눈을 닦았다.

“천만에요. 당신들에게 빌려 주는 것은 나에게 명예로운 일이 될 겁니다. 기쁜 일이 될 거예요.”

앤더슨 장로가 일어서서 세끼씨와 악수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동반자에게 손수건을 빌려 주었다.

약 반 시간 뒤, 기차를 타기 위하여 그곳을 떠날 때, 앤더슨 장로는 모찌다씨의 차로 기어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라디오 선전 음악인 “도우트츠씨”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



첫째 목표…… 아빠를 개종시킴

(엘리자벳 세인즈베리 오턴
실화에 의거함. 이름은 바꾸었음)

가족 가운데 자기 혼자만 회원이거나 활동 회원인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와드에는 가정의 밤, 가족 기도 및 경전 읽기를 하고 있는 이상적인 가족으로 가득 차 있는 것같이 보이며, 이것은 모두 자신도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다. 한편, 자신은 교회에서 혼자 앉아 있거나 다른 가족과 함께 와드 파티에 간다.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변화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내려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는 군중 가운데 혼자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절히 호소해도 가족들이 거절할 때는 낙담하게 된다. 때로는 자신이

측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언젠가는 가족이 개종하리라는 희망에 꼭 매달리게 된다. 수전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

수전은 만 16세로서, 예쁘고 재능이 있는 소녀다. 그녀가 아름다운 것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며, 그녀에게 재능이 있는 것은 자발적인 의욕을 갖기 때문이다.

수전은 인생이라는 강물에 조심스럽게 걱정하며 발끝을 담그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머리부터 푹 담근다. 처음에는 입술이 파래지고 숨을 헐떡거리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수전은 3년 전에 침례받은 후 가정에 목표를 두었다. 그는 아버지가 침례받으시기를 원하였다.

수전은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아버지께서 침례받으시면 어머니도 교회에 들어오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 혼자서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부모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좀더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라고 덧붙인다.

“저는 강제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측은하게 여기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제가 교회에서 혼자 앉아야 하며, 혼자 노래불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기 가족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전은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으나 굴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선교 사업에 대하여 좀더 배운 다음 한 가지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가족이 나의 교회 모임에 오도록 초대했습니다. 저는 성찬식에서 말씀했으며,

어머니께서 오시곤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스테이크 대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옷까지 장만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려 했으나 병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오시리라는 희망은 갖지 않고 갔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예배당 뒷쪽을 보았을 때, 아버지께서 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노래를 불러야 했기 때문에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교회에 가신 것은 와드에서 아버지와 딸의 사교 모임이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으며, 언젠가는 그가 침례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저는 그것을 알았으며,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전은 선교 사업에 대하여 더 배웠다. 수전은 “혼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실했다.

하루는 수전이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자기 앞 도로에 자전거 두 대가 서 있고, 두 선교사가 어떤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선교사들은 이전에 수전의 집을 다섯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한번씩 방문을 한다. 그러나 수전은 그런 것이 자신의 새로운 기대를 막게 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이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 선교사들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던 집에 안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께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들은 어느 지역에서 집집마다 방문한 것인가에 관하여 기도한 결과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을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알든 모르든 주님은 그것을 아시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전하고 쉽지는

않았다. 수전은 왜 모든 것이 좀더 빨리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몹시 실망할 때도 있었다. “그럴때 저는 침례받을 준비를 갖추는 것이 저 자신에게도 매우 느린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 교회에 혼자 앉아 있거나 저보다 더 여진이 나쁜 듯한 젊은이들을 보곤 했으나 그들은 낙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범은 제가 자신을 축은하게 여기는 것을 멈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수전은 자신의 모범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선교 사업의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 즉, 스스로 준비를 갖추고 성장하는 축복을 거두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큼 준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금식과 심지어는 회개까지 해야 했습니다. 선교 사업은 사랑과 봉사라는 것과 동생들이 듣고 있더라도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보이는 선교사들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5개월 동안에 일곱 차례 수전의 집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수전은 아버지께서 침례받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월 어느 날 밤, 저는 감독님과 생일 접견을 하러 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수전은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을 계속했다. “저는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저를 찾으실 수밖에 없도록 홀 끝에 숨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들어오셔서 혼자서 감독님을 만날 수 있겠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약 30분 동안 거기 계셨으며, 저는 도대체 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현관쪽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동안 저는 그 접견에서 생긴 일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봐, 수잔아, 내가 침례받을 것 같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으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건 좀 어리석은 말이었지만, 자신의 가장 큰 목표가 방금 실현될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수전의 아버지는 4월 14일에 침례받았다.

그러나 수전은 자신의 선교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아직도 때로는 조금해지고 낙담하지만 해의 왕국의 가족이 되는 것은 단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간증을 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수전은 선교 사업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는데, 대부분은 시행 착오를 통하여 배웠다. 그는 사람에게 따라서 적절한 시간과 반응이 다르다는 것과 강제나 연민의 정은 성공하지 못하며, 봉사에 대하여 말만 하는 것보다는 참된 봉사가 훨씬 더 중요하며, 성령이 그 사람의 생활에 감동을 주어야 하며, 열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열의에 관해서라면 수전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어색하고 무섭고 매우 어렵더라도 담대하게 실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노력한다.

수전은 단호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다. “20년 전에 우리 아빠는 교회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으나 우리 가정 복음 교사가 수없이 방문하고, 여러 선교사들이 방문하고, 아버지를 가만히 놔 두지 않는 딸이 있으므로 해서 이제는 교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전은 열성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가정의 밤을 갖고, 가족 기도를 하며, 신전에서 우리 가족에게 인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저의 첫째 목표입니다.”

*

확신을 주는 위안

조엘렌 제스터

나는 만 14세밖에 안되었으며,
그렇게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어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아이다호주 보이즈에 있는 병원의 아버지 병실에 앉아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들이 아직 아버지의 병을 진단내리지 못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심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한 달 동안 앓고 나자, 브리검 영 대학에 다니는 릭 오빠를 불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드리게 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돕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으므로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했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나 자신의 기도를 드렸다. 나는 그 마지막 달에 그 이전까지의 평생 동안 기도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기도드렸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았으므로 몸도 좋지 않았다. 신경이 쇠약해져서 항상 불안했다. 나는 아버지의 병이 어떤 것인지 몰랐으나 그가 돌아가시리라는, 그런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몇 분 후, 릭 오빠가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릭 오빠가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리라고 약속해 주길 바랐다. 그러나 릭 오빠는 아버지가 회복하리라는 약속은 한번도 안했다. 그는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위안받으리라고 했다. 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병실을

나섰다. 케이스 오빠가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혼자서 생각에 잠기려고 내 침실로 갔다. 거기에 앉아 있는 동안 무언가 좋은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느꼈으며, 내가 괜찮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좋지 못하시리라는 느낌이 들었으나 이전에는 한번도 느끼지 못한 확신을 느꼈다.

그 다음 주에 의사들은 아버지의 병이 골수암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나는 다시 초조하고 무서워졌다. 그 이후의 수개월은 무서운 악몽과 같았다. 밤에는 혼자 흐느껴 울었으며,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오는 아픔이 언제 사라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버지는 축복받으신 지 6개월 후에 병원 침상에서 돌아가셨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집에 있었으며, 스티브 오빠가 병원에서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내 방에 가서 울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공허한 느낌만 들었다.

침대에 누워서 아버지가 없이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는 동안 측은 느낌이 들었다. 당시에 나는 만 14세밖에 안되었으며, 그렇게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어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커다란 상실감을 느꼈다.

그 순간, 평화롭고 평온한 느낌이 왔다. 그것은 몇 달 전 아버지께서 축복받으시던 날 느낀 것과 비슷했다. 이 화평스런 느낌은 안도감을 수반했다. 나는 아버지의 영을 느꼈고,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고, 항상 그러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를 빼앗아 갈 수 있지만 그의 영과 사랑은 영원히 나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가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영감과 인도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의 아버지 두 분이 나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을 전보다 더 깨닫고 있다. 나는 지상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자주 느낀다. 나는 확신을 주는 그의 영의 위안을 여러 번 느꼈으며, 그가 나를 홀로 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

